

碩 士 學 位 論 文

한국의 관악 발전사와 제주의 관악  
발전사에 대한 비교 연구

指導教授 김 현 숙

2006년

暎園大學校 大學院

音樂學科 管絃樂傳攻

金 智 惠

指導教授 김 현 숙

碩 士 學 位 論 文

한국의 관악 발전사와 제주의 관악  
발전사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History of Development in  
Korean Wind Music And Jeju Wind Music

2006년

暎園大學校 大學院

音樂學科 管絃樂傳攻

金 智 惠

한국의 관악 발전사와 제주의 관악  
발전사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History of Development in  
Korean Wind Music And Jeju Wind Music

指導教授 김 현 숙

이 論文을 音樂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년 12월

暎園大學校 大學院

音樂學科 管絃樂傳攻

金 智 惠

# 認 准 書

이 論文을 金智惠의  
音樂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2006년 12월 일

審査委員長 \_\_\_\_\_인

審 查 委 員 \_\_\_\_\_인

審 查 委 員 \_\_\_\_\_인

景 園 大 學 校 大 學 院

## 국 문 요 약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일본 및 기타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이며 세계의 정상들이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였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관련 억지주장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및 동북공정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역사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일차적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여 역사에 대한 개념과 정립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으로서 국내외에서 공인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본 논문은 대한민국 서양음악의 발전과정을 연구하였고 그 역사를 통하여 제주의 관악(管樂)의 역사를 정립해보고자 하였다. 물론 음악분야의 역사 관련 논문으로서 역사적 배경이나, 과거에 국한하지 않았다. 최근 제주에서 개최되어진 음악축제 및 관악관련 축제(제주관악제, 제주국제관악제, 앙상블축제, 아시아·태평양 관악제, 세계 마칭쇼 밴드 챔피언쉽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관악분야의 축제는 독특한 제주 관악의 역사적 배경이 근원이 되었고, 이러한 제주 관악의 역사는 우리나라 관악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의 관악 분야 유입 배경 이전에 우리나라 관악의 역사를 본다면 다음과 같다.

1876년 조선은 한·일 수교를 체결하여 일본에 문호를 개방하였고 1882년 5월 22일 한·미 조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청(淸), 로(露), 일(日)등 강대국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던 고종은 군대 창설이 시급한 문제라고 인식하였다. 이후 1896년 5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민영환을 주축으로 특사를 파견하였는데 대관식 행사에서 서양음악 연주와 군악대의 모

습에 한국 사신들은 자극을 받았고 귀국 후 민영환은 군사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군대지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군악대 도입을 건의하였다. 이에 조선정부는 1897년 3월 러시아 악기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여 한국 최초 곡호대(曲號隊)<sup>1)</sup>의 발족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관악대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

제주에서 관악의 시작은 일제치하 시대였던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몇 개에 불과했던 보통학교가 1923년 4개교의 신설을 시작으로 1930년대 중반에 20여 개로 늘어났고 군국주의 교육과 군사훈련등의 필요성에 의해 학교 관악대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주의 관악의 활동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패망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46년 제주중학교 15인조의 교악대가 김국배에 의해 발대되면서부터 다시 시작되었다.<sup>2)</sup>

1950년 한국전쟁은 제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음악분야 또한 많은 음악인들이 제주로 피난 음으로서 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육군훈련소 군악대가 활동을 개시하였고 1952년 9월 오현고등학교의 관악대 창설을 시작으로 제주여고, 서귀중, 표선중, 세화중등이 교악대를 창설하여 활동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현재 제주의 대표적인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가 발전하였는데, 이 축제는 관악을 통하여 제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제주의 문화관광축제이다.

2004년 제주국제관악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출, 고용, 소득 효과로 구분하였는데, 참가자의 소비지출증대 27억 원과 시설투자 5억여 원의 증대로 인해 나타나는 총 산출효과는 44.6억 원, 고용효과는 224명, 소득효과는 30.8억 원으로 추정되었다.<sup>3)</sup>

1) 조선 말기에 설치한 취주악대. 1881년(고종 19) 이후 신식군대의 훈련이 채택되면서 편제되어 군대의 행진과 군례(軍禮)에 사용되었다. 사용한 악기는 나발, 북 정도였다.

2) 좌운국, 제주문화예술백서, 제주음악의 어제와 오늘, 제주예총, 1988, P 108-122

3) 제주문화예술재단 연구보고서,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 예술, 사회적 환경에 대한연구], 2004, P. 76

제주국제관악제를 통해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바로 사회,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볼 수 있는 예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어려웠던 시절 관악대의 활동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러한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고 발전시켜 온 선배 음악인들과 그 기상을 이어받은 제주의 토박이 관악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다양한 자료를 통하여 제주 관악의 유입 배경에서부터 발전사를 연구하였고, 그 중심에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를 조명하였다. 많은 선배 음악인들이 이루어 놓은 과거사를 정리하는데 그치는 수준을 넘어서서 과거 제주 관악의 역사와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 및 연주회를 비교하면서 제주도 내의 관악의 미래를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제주는 이미 관광지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평화의 섬으로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를 비롯한 관악대의 활동은 제주 관악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이며 관악으로서 제주를 문화관광의 섬으로 세계속에 위상을 떨치고 있다.

본 논문이 이후 제주의 관악분야 발전에 초석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적인 수준의 제주 관악을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 목 차

국문요약 -----	i
표 목 차 -----	v
 I. 서론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II. 본론 -----	 3
1. 대한민국 관악의 역사 -----	3
1) 유입 배경 -----	3
2) 일제강점기 -----	6
3) 근대시대 -----	9
4) 현대시대 -----	19
 2. 관련 기관현황 -----	 24
1)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 -----	24
2)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	24
3) 교육 기관 -----	26
가. 초등학교 -----	26
나. 중학교 -----	27
다. 고등학교 -----	27
라. 대학교 -----	34
4) 연주 단체 -----	36
가. 국공립예술단체 -----	36
나. 민간단체 -----	39



3. 관련 주요 행사 -----	45
1) 제주관악제 -----	45
2) 제주국제관악제 -----	46
3) 그 외 국내외 행사 -----	47
4. 제주국제관악제 -----	51
1) 배경과 역사 -----	51
2) 현 황 -----	52
3) 영 향 -----	54
4) 발전 방향 -----	58
 III. 결론 -----	 61
1. 종합분석 -----	61
2. 결론 -----	64
 ■ 참고문헌 -----	 66
 ■ ABSTRACT -----	 68

## 표 목 차

<표 1> 한국 최초의 학교악대 -----	7
<표 2> 일제시대 관악대가 있던 학교 -----	8
<표 3> 전국 시·도별 악대 분포 현황 -----	10
<표 4> 전국 악기 보유현황 -----	11
<표 5>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 연혁 -----	16
<표 6> 축제 추진 조직도 -----	25
<표 7> 자원봉사자의 분야 및 인원 -----	25
<표 8>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 참가팀 -----	26
<표 9> 제주시립합주단의 활동 -----	37
<표 10> 서귀포시립관악단의 연도별 연주 실적 -----	38
<표 11> 한라원드앙상블 연혁 -----	40
<표 12> 제주브라스앙상블 연혁 -----	41
<표 13> 제주팝스앙상블 주요 연혁 -----	42
<표 14> 제주청소년관악단 주요연혁 -----	43
<표 15> 제주도내 연주단체 현황 -----	44
<표 16>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연혁 -----	48
<표 17> 2006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제주대회 참가팀 -----	50
<표 18> 제주국제관악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	56

## 그 림 목 차

<그림 1> 길버트소령의 지휘 지도모습 -----	15
<그림 2> 오현고등학교 관악대 창설 -----	29
<그림 3> 제주국제관악제 포스터 -----	51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주도는 지난 1948년 도제 실시 이후 59년 간 이어져온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제주시대를 개막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포하고 2006년 6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7월부터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특별자치도는 싱가포르와 홍콩, 포르투갈처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이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세제 혜택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정부의 지원으로 핵심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제주의 변화는 주변 국가와의 다양한 경쟁을 낳고 있으며,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억지주장과 역사왜곡 교과서 파동, 또한 중국的高구려사 왜곡 등을 둘러싼 동북공정 망언과 우리 제주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이어도 억지 주장 등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흔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들은 모두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여러 음악 분야 중 관악사만을 중심으로 하여 발간한 논문은 없었다. 또한 관악 분야만이 가진 전문적인 연구와 단독 논문 또한 최근에 발간되지 않음으로서 제주의 관악사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이 제주관악 역사의 모든 부분을 연구하기는 어렵겠으나, 2000년대 이후에 제주의 관악의 유입배경에서부터 발전, 그리고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관악관련 행사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던 것에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본 논문은 연구보고서, 논문, 일간지 및 세미나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의 다양한 자료와 정보등을 참고로 작성하였고 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보다 더 객관적인 논문을 작성하여 향후 관악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이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1876년 일본의 강요에 의한 한·일 수교를 체결한 이후부터 2006년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간 일본의 속국이 되는 비통함도 있었고, 광복의 기쁨도 있었으며 민족 최대의 고통인 한국전쟁이 발발 하는 등의 무수히 많은 역사적 사건과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관악사가 역사적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에 관악을 유입하게 된 국가 및 사회적 배경에서부터, 정부의 군악대 창설 배경과 과정, 일제강점 시대와 근대시대 및 현대시대의 관악사를 연구하였다. 또한 제주지역의 관악관련 기관을 협회와 교육기관, 연주단체로 구분하여 활동내용과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에서 개최되는 관악관련 행사(제주관악제, 제주국제관악제, 그 외 국내외 행사)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제주국제관악제의 역사와 현황, 세부내용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였으며 각종 세미나 및 보고서등의 자료를 통하여 교육기관, 관악단체, 행사로 구분하여 발전사를 정리하였다.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내용은 중앙지와 지방지의 보도 자료와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발간한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 예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였고, 관련 논문과 중앙의 관련기관에서 보도된 자료집, 제주도에서 발간하는 기타 자료를 인용하였다.

끝으로 본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정리하였고 참고문헌은 관련논문, 기타보고서, 언론보도자료, 음악 관련 잡지, 역사 및 국사 관련 도서자료의 근거로 기술하였다.

## II. 본 론

### 1. 대한민국 관악의 역사

#### 1) 유입배경

우리나라 관악의 유입은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가한 민영환 일행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정부는 민영환을 대관식 참가와 함께 선진제국의 실정 시찰을 겸한 대표단으로 파견하였다. 대표단은 일본, 뉴욕, 런던,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를 경유하여 5월 19일 러시아에 입국하였다. 대 여정 속에서 대관식을 위한 여러 의식과 축하 행사가 있었는데, 특히 군함이 정박하는 항구마다 이들을 맞아들였던 군악대의 모습은 한국 사신들을 충분히 매료시켰다.<sup>4)</sup>

그리고 이들 일행은 귀국할 때 러시아 군사 교관인 포차타(Potiata)대령을 비롯하여 사관 3명, 러시아 군인 10명을 대동하고 귀국하였다. 그 후 민영환은 군부대신(軍部大臣)에 임명되었고, 군사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군대의 사기 진작과 군사배치, 군대지휘를 기동성 있게 하려고 서양 나팔을 도입, 사용할 것을 건의했다.<sup>5)</sup> 이때 조선정부 역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1900년 12월 19일 날짜로 다음과 같이 양악대 창설을 공포하였다.<sup>6)</sup> 그리고 이와 동시에 양악대를 육성할 외국인 음악가로 프란츠 에케르트<sup>7)</sup>를 초빙했다. 에케르트는 빌헬름스하펜에 있는 해군군악대의 군악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일본에 파견되어 같은 해 4월 일본 해군군악대 교관으로 부임하면서

4) 남궁요열, 개화기의 한국음악, 세광음악출판사, 서울, 1987, P. 8

5) 국사편찬위원회, 민충정공유,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1958, pp. 53~56

6) 이윤선, 「한국 양악 100년사」에 수록. 칙령 제59호로 관보에 게재되어 있음.

7) 독일 쉐레지엔 출생. 1879년 일본으로 건너가 해군 군무국에 근무하다가 1900년 한국에 군악대가 창설되게 되자 그를 초빙하였으며, 그는 1901년 2월 50인조 정규 군악대의 각종 악기를 가지고 내한하였다. 1910년 국권피탈로 군악대가 해체되고 이왕직(李王職)양악대로 바뀌자 악대의 지휘를 백우옹(白禹鏞)에게 맡기고 자신은 개인지도 등으로 음악활동을 계속하였다. 독일음악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가교역할을 하였다.

일본에서 정규적으로 양악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군악대는 우리보다 약 30년이 앞선 1872년 9월에 해군군악대가 처음으로 창설되었다.

에케르트는 20년간(1879-1900) 일본 해군군악대를 지도하여 일본의 관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에케르트는 1899년 3월 해군군악대의 근무를 마치고 20여년 만에 독일로 귀국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1901년 2월 27일 입국하게 되었다. 입국 후 양악대원을 선발하였고 양악대원은 1차로 1901년 3월에 나팔수 중에서 50명을 선발하여 4월부터 교육에 들어갔다. 그 후 1904년 봄에 2차로 일반인들 중에서 50명을 소집하여 2개 소대를 1개 중대로 편성했으며, 1개 소대는 교육대, 1개 소대는 연주대로 구분하여 중대장 1명, 소대장 2명, 서기 2명, 정교 군악 지휘자 1명, 1등 군악수 1명과 나머지는 악수로 구성했다.<sup>8)</sup>

#### 칙령 제59호 군악대 설치하는 건

제1조 : 군악 2개대를 설치하여 1개대는 시위대(侍衛隊)에 부속하고 1개대는 시위기병대(侍衛騎兵隊)에 부속할 것.

제2조 : 군악대의 직원은 좌개별표(左開別表)에 의할 것.

제3조 : 군악대의 소속 직원 봉급은 개국(開國) 504년 칙령 제88호. 무관직상당관(武官直上當官等) 봉급령 제1조에 준하여 일반관등(一般官等) 봉급령에 의할 것.

제4조 : 본령(本令)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것.

#### 군악대 일개대(一個隊)의 직원 별표

관등(官等)	직명(職名)	인원
1등군악장	대장(隊長)	1인
2등군악장	부장(副長)	1인
부참교(副參校)	1등 군악수	3인
상등병(上等兵)	2등 군악수	6인
병졸	악수	27인
병졸	악공	12인
참교(參校)	서기	1인
계		51인

광무 4년 12월 19일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조 병 식(趙秉式)

8) 남궁요열, 개화기의 한국음악, 세광음악출판사, 서울, 1987, p. 56.

양악대의 교육 초기에는 당연히 악보 읽는 법과 악기 잡는 법도 몰랐기 때문에 기초부터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연습을 시작한지 불과 몇 개월도 안되어 데뷔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치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데뷔연주회는 1901년 9월 9일, 고종 황제의 탄신일에 치러졌다.

이 날 서울 주재 각 국 공사를 비롯한 내외 귀빈들이 궁정에 초대되었는데, 그 앞에서 첫 연주를 한 것이 에케르트가 이끄는 양악대였다. 이 연주회는 청중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었다. 에케르트와 양악대는 짧은 기간 안에 빠른 성장을 해 갔고, 한국의 양악대와 음악인재를 육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 음악을 계승, 발전시켜 이것을 세계화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그 방법을 한국인에게도 전수하였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국가인 ‘대한제국 애국가’를 작곡하였으며, 한국어 찬송가의 개정 작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한국 전통 음악의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편 양악대는 바그너의 서곡 등을 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기량이 신장되어 국내의 서양 음악 보급에 기여하였고, 음악을 통한 외교 사절단 역할도 훌륭하게 해냈다. 그러나 1907년 군대가 해산되자 양악대의 운명도 급격하게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일단 명칭이 ‘이왕직양악대(李王職洋樂隊)’로 바뀌어 한동안 탑골공원 연주 등은 지속되었으나, 한일합방 후에는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워 민간단체의 성격을 띤 ‘경성악대’로 변모하였다.

양악대가 해산되자, 양악대 출신의 음악가들은 학교 밴드나 영화음악, 대중가요 쪽으로 활동 분야를 개척해 나갔으며, 일부는 관현악단에서 활동하면서 국내의 양악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그리고 양악대 출신인 백우용, 정사인 등은 전통 음악을 채보하고, 그것을 오선화(五線化)하여 신민요를 작곡하는 등 전통 음악분야에서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 9)

---

9) 방일영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총서, 우리양악100년, 서울, 2001, p. 48~p. 52

## 2) 일제강점기

### 가. 국내의 관악발전

일제는 1904년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뒤 5월말에는 ‘대한 방침’(大韓方針)등 대한(對韓)경영 방안을 세밀히 마련하여 한국을 완전히 합병하는 전제하에서 군사, 외교, 재정 등의 모든 통치권을 남김없이 장악할 준비를 진행시켰다. 이런 정세 하에 대한제국 시위대 군악대도 건재할 수가 없었다. 군악대는 비록 군대 해산과 함께 해산되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예산 삭감 속에서 날로 운영이 어려워졌다. 일제는 1906년에 각 국 외교사절의 철수에 이어 1907년 4월 군대를 완전히 해산시키고자 획책하였고 군악대도 칙령 제20호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산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10)</sup>

1910년 8월 29일에 병합이란 형식으로 완전히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조선 왕조는 개국 26대 509년 만에, 그리고 대한제국이 성립된지 2대 18년 만에 끝이 나고 말았다. 일제에 의해 군악대가 폐지됨과 동시에 ‘제실음악대’는 관내부로 이속시켜 그 명맥을 유지하기에 이르렀고 1907년 11월 11일에 군악대원을 제실음악대로 개편, 조직하였다. 그러나 1910년 한국이 일제에게 강제 합병되자 한국의 왕실 예산도 일제 총독부에 의해 지급이 되면서 예산 삭감과 감원으로 막대한 악대의 경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고 에케트마저 타게하게 되어 결국 1916년 해산되었다.

악대의 해체를 애석히 여기고 수개월 동안 회생 방법을 찾던 대원들은 1919년 10월 13일 창립연주회를 시작으로 최초의 민간악대인 ‘경성악대’를 군악대라 부르는 풍이 있었다.<sup>11)</sup> 이 때 경비를 벌기 위해 활동한 것이 후에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뿌리를 내리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뜻 있는 유지들은 이들의 음악을 지속시킬 방법을 모색하던 중 악대유지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선 음악회의 성격을 띤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이 후 ‘경성악대’는 전적으로 후원을 받아 활기를 찾았지만 오래 지속되

10) 구한국관보 권 17, 성문출판사, 1994, 서울, p. 719, p. 868.

11) 이유선, 한국양악 100년사, 음악춘추사, 서울, 1985, p. 158.



지 못했고 각 대원들은 운동회나 광고 악대로 불려다녔다. 일제 학정과 폐쇄한 민중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더 이상 명맥을 잇지 못하다가 1930년에 결국 해산되었다. ‘경성악대’의 해산으로 대원들은 그들의 악기를 끌어안고 하나 둘씩 흩어져 나갔다.<sup>12)</sup> 그들은 학교에 들어가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학교악대를 조직, 육성하였고 여기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1945년 창군과 더불어 창설된 군악대 핵심요원을 이루게 되었다.<sup>13)</sup> 당시 창설된 학교 악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 최초의 학교악대

연도	내 용
1917년	평양숭실학교 관악대 (장로교 선교사로 내한한 마우리 박사가 조직)
1929년	연희전문학교 관악대 창설
1930년	배재, 휘문, 중앙, 경신, 중동학교가 연합관악대를 조직, 학교관악대 발전에 공헌

출처 : 「K.B.A. 100년사」 한국관악대지도자협회, 세종출판사, 1983

#### 나. 제주의 관악발전

제주에서 관악의 시작은 일제치하 시대의 일본의 교육제도가 완성되었던 193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몇 개에 불과했던 보통학교가 1923년 4개의 신설을 시작으로 1930년대 중반에 20여 개로 늘어났고 군국주의 교육과 군사훈련 등의 필요성 등에 의해 신설된 학교에 관악대 활동이 시작되었다.<sup>14)</sup> 따라서 제주도 관악의 출발은 일제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들의 필요에 따라 좀 더 용이하게 쓰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관악대가

12) 이유선, 한국양악 100년사, 음악춘추사, 서울, 1985, p. 159

13) 이병호, 「한국 근대군악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일고」 고려대학교육대학원논문, 1983, p. 22

14) 제주도지 편집 위원회, 제주도지(상), 제주도, 1982, p. 411

집합신호나 행진을 위한 북과 신호용 나팔 몇 개 정도로써 극히 미약한 편성이었다는 점이 증명해 준다.<sup>15)</sup> 1940년 대 부터는 제주 출신을 포함한 한국인 교사들에 의해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때가 본격적인 제주도 관악활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표 2> 일제시대 관악대가 있던 학교

설립별	학교명	소재지	설립 년월	직원		계	학급 수	아동수		
				일본인	한국인			남	여	계
공립	애월보통학교	애월면	1923. 9	2	4	6	6	376	53	429
공립	성산포서보통학교	성산면	1923. 9	4	3	7	6	375	53	405
공립	한림서보통학교	한림면	1923. 9	3	4	7	7	408	88	496
공립	신창보통학교	한림면	1938. 4	1	1	2	2	135	6	141
사립	하도보통학교	구좌면	1923. 4				4			
공립	외도보통학교	제주읍	1939. 5				4			

출처 : 제주도지 편찬위원회, 제주도지, 1982, pp. 411~419.

제주에 정착한 최초의 음악 전공자인 김국배<sup>16)</sup>는 숭실전문학교를 마치고 경성교향악단(바이올린)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주에 오게 되었다. 그는 해방 후 제주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학교관악대를 만들고 지도하였다.

제주중학교에서의 유일한 관악대의 활동은 제주농업고등학교로 이어져 제주중학교 졸업생들이 이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활성화가 되었으나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1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지도교사의 전출로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당시 활동했던 민간 관악대인 제주주정공장

15) 이선문, “제주도 관악의 변천과정에 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원석사논문, 1984, p. 6.

16) 1912년 전남목포에서 출생, 어머니의 고향이 제주. 목포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숭실전문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함. 안익태선생과 동문이 되어 제주에서 공연을 하였고 학교를 마친후 한국교향악단의 호시인 경성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함. 1964년도에 제3회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하고 제주여중고교에서 1951년도부터 63년 2월까지 13년동안 재직하였고, 1962년에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의 창립에 중추적 역할을 함.

관악대는 회사에 비치되어 있던 악기가 있어 몇몇 관심 있는 직원들이 모여 만들었다. 이 관악대는 사실상 제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직장 관악대로서 주로 사원 위안연주 및 사내 체육대회 등에서 활동을 하다가 1949년 초 해체되었다.

### 3) 근대시대(1945년부터 1980년대까지)

#### 가. 국내의 관악발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국은 1945년 광복되면서 국토는 분단되고 3년간 미 군정하에서 학교악대와 경찰악대, 시립악대등 관악대가 활동하기 시작했고 미군 부대에서 지원된 악기로 학교 악대들이 편성되기 시작했다.

1946년 10월 “한국관악연맹”을 조직하고 문교부와 관악연맹이 주관하는 관악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관악 악보 출판과 강습회 및 제1회 한국 관악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 해 봄, 서울시립취주악대가 조직되어 서울시의 모든 행사와 시민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지휘에 이유성, 부지휘에 이재옥, 총무에 남궁요열 및 단원 40명으로 편성되고 악대원은 외지에서 귀국한 관악주자들과 국내 경음악단에서 활약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1947년 9월 고려교향악단 관악연주자가 모여 관악에 관한 실기와 이론을 연구하고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강습회와 방송, 악보출판, 그리고 학술발표회 등을 갖는 ‘한국관악연구회’가 조직되었다.(회장 남궁요열)

1950년 한국전쟁 중에 각 민간악대와 학교악대는 전면 폐지되고 1953년 종전 후 1965년까지 각 군악대의 대민 연주활동은 국토재건에 박차를 가하며 군악대가 관악 발전을 주도했으나 그 후 서울대학교 및 기타 여러 음악대학에 관악과, 또는 기악과가 설치되어 관악 전공 학생이 늘고 연주와 이

론 실력이 향상되었다. 또한, 1961년 대한 음악가협회와 한국 문화단체 총연맹이 해체한다는 선언이 있었고 그 후 민족음악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적인 음악문화 교류를 통하여 음악가의 지위 향상과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음악단체인 ‘한국음악협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1년 9월 22일 한국 학교관악대 및 관현악대 교육지도와 발전에 관한 협의 및 악곡창작의 보급과 악대의 질적 향상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학교악대 지도자협회」가 조직되었다.

한편, 문교부에서는 교과과정에 특별활동 시간 효율적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학교악대 조직 및 기타 예능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였고 이 후 전국에서 많은 학교악대가 급속히 창설되고 활동하게 되었다.

1961년 12월 25일 관악연구회가 문교부를 통해 전국 악대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sup>17)</sup>

**<표 3> 전국 시·도별 악대 분포 현황**

(1961. 12. 25)

장소	관악대	관현악대	현악대	나팔고대	고적대	기타(하모니카, 아코디언)	계
서울특별시	68	4	5	-	-	1	78
경기도	40	-	1	4	4	-	50
강원도	85	-	-	-	-	-	85
충청남도	30	-	-	1	-	-	31
충청북도	29	-	-	2	2	-	33
전라남도	23	-	-	-	6	-	29
전라북도	18	-	1	-	-	1	20
경상남도	47	-	-	-	-	-	47
경상북도	32	-	-	6	16	-	54
제주도	1	-	-	-	2	-	3
계	373	4	7	13	30	3	430

출처 : 남궁요열, 「한국음악총람」 상권(한국음악협회, 1991) p. 375.

당시 학교악대 발전이 지연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그 요소는 군악대의 협조를 받았음에도 연주용 악보와 관악 교칙본, 지도자가 부족하였으며, 광복 후 정치와 경제의 불안정은 학교 운영난을 초래케 하여 학교

17) 남궁요열, 한국음악총람 상권, 한국음악협회, 서울, 1991 p. 375.

악대의 존재 위기까지 몰고 갔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한국 경제 부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점차 학교악대의 발전이 활기를 띠었다. 점차적으로 관악전공의 학도가 외국으로 유학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났고 외국의 저명한 교수에게 주법과 음악이론을 흡수하기 시작하여 한국 관악 실력이 향상되었고 또한 그들이 후배를 지도함으로써 전통적인 관악교육이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 할 수 있다.

<표 4> 전국 악기 보유현황

(1961. 12. 25)

지역	목관	금관	타악기	현악기	계
서울특별시	579	951	372	195	2,097
경기도	184	532	301	-	1,017
강원도	140	319	130	-	589
충청남도	124	309	106	-	539
충청북도	39	107	128	-	274
전라남도	84	320	309	-	713
전라북도	120	254	78	4	456
경상남도	145	326	138	-	609
경상북도	137	678	766	-	1,581
제주도	82	9	70	228	387
계	1,632	3,805	2,398	427	8,262

1973년 「한국관악지도자협회」가 창설되면서 불과 10년 동안 전국적으로도 단위 1개의 지부를 두고 관악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악대수가 700개 팀이나 되고, 악기 수는 35,000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학교악대는 연주향상을 위한 관악대라기 보다는 학교장의 방침에 의한 행사위주의 관악대로서 활동을 많이 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수업 결손에 따른 학력저하와 학부모 및 담임의 반대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예산상 어려움에 학교악대는 점차 해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환경의 영향으로 시대가 흐를수록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관악대가 점차 해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끊임없이 학교악대가 유지되

고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는 ‘한국관악 지도사회’의 노력과 학교악대의 선구자적 역할을 한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있다고 하겠다.

1970년 이후의 학교악대는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행사위주와 임시위주의 교육환경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차츰 학교악대는 그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였지만 80년대를 거치면서 학교악대는 연주기량과 외국산 양질의 악기를 보유하게 되어 악대 운영 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 왔다.

본격적인 관악단체의 활동 역시 1973년 9월 29일 서울에서 한국관악지도사회가 조직된 이후라 볼 수 있다. 매년마다 전국 시·도에서 순회 개최되는 전국관악제(현, 대한민국관악제 1992년 제17회 제주대회부터 개칭) 경연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지도자연수회, 청소년관악연수회, 해외교류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0년에는 관악지도자 중심의 조직에서 관악인 전체의 조직으로 확대키 위해 ‘한국관악협회’로 단체명을 바꾸었으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시·도시에 16개의 지부와 한국마칭지도자협회를 비롯한 25개의 산하 단체를 두고 있다.

1974년 서울교향취주악단이 서울윈드앙상블로 바뀌어 직업악단으로 연주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기업체에 소속된 악단으로 실력을 과시하고 있는 린나이 콘서트 밴드는 직업악대로서 맹활약을 하였고 현재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1976년 10월 12일에는 서울 한울림 교향취주악단이 조직되어 한국 유일의 민간 관악단의 대표격으로 많은 연주 활동을 하였다. 또한 1978년 서울특별시 음악교사 관악합주단이 조직되어 연주 활동을 함으로써 한국 관악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0년대에 기간산업과 경제부흥으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양질의 개인 악기보유와 관악인구의 증가로 각 교향악단 관악대원이 관악실내악 연구와 발표회를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80년대에는 KBS배 전국관악대회 및 마칭경연대회와 전국관악제를 개최하여 학교악대 발전을 지속시켰고 전국 각지에서 민간악대가 조직되는 등 관악합주의 예술적인 연주와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80년대 후반에는 세계 밴드 페스티벌

및 아시아·태평양 관악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국제적인 행사와 관악의 교류문화 사업이 전개되면서 한국의 관악이 세계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 나. 제주의 관악발전

1940년 중반, 제주에서는 해방이 되었음에도 그 감격과 흥분, 민족적 감정을 발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제주도민 중에서 음악활동을 하거나 혹은 음악에 조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해방 후 연이은 미군주둔, 4·3 사건, 정부수립, 6·25 동란등의 시대 흐름 속에서 모든 예술방면에 대한 관심의 기회가 적었고 섬으로서의 지리적 여건으로 내륙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던 상태여서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도민의 지대한 교육열로 인하여 공립 및 사립 중등교육기관이 신설되고 초등교육기관들이 설립되었다. 1947년 제주초급중학교(1946. 12. 1. 개교)에서는 9인조의 제주 최초 중등학교 관악대가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신설학교의 어려움과 재정상태의 곤란 속에서 이루어낸 결과였다. 이후 제주초급중학교의 관악대는 4·3 사건에 인해 발족되어 선무공작대 내에서 활동하며 많은 활약을 하였다. 또한 당시 제주도내 가장 큰 회사이던 동척회사(제주주정회사의 전신)의 사원들로 구성된 직장 관악대가 창설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한편 제주도내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었던 제주농업고등학교에 1949년 관악대가 창설되어 자치행사 및 제주초급중학교 관악대와 합동행사 등을 하였다. 이와 같은 관악대의 활동은 미약하나마 음악의 불모지인 제주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1950년 한국 전쟁의 발발은 제주도 음악사에 또 하나의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그것은 한국 음악계의 많은 인사들이 전쟁 중에 제주로 피난을 와 그들의 영향에 의해 도내 음악의 발전적 모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들 음악인에는 이성삼(합창, 지휘), 계정식(바이올린), 박재

훈(작곡, 신성여자중학교 교가 작곡), 김금환(성악, 오현고등학교 피난분교 음악교사로 ‘춘향전’을 공연), 이성재(제주중학교 교사) 등이 있었다.<sup>18)</sup> 이들의 활동은 제주에 서양음악의 뿌리를 내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4·3 사건과 관련하여 귀순 권유와 대민 지원을 위한 제1훈련소 군악대, 경찰악대등 관 주도의 계몽적 성격을 띤 조직들이 구성되었다. 한국전쟁과 더불어 창설된 제1훈련소 군악대는 훈련소내의 행사뿐만 아니라 대민사업도 활발히 펼쳤다. 그리고 현역 군인으로서 클라리넷을 전공한 한 상사는 제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관악대를 직접 지도하여 목관악기의 새로운 주법을 전수하며 제주도의 관악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901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군악대를 창설하였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해산의 위기를 맞게 된다. 해산 후 뿔뿔이 흩어진 군악대원은 해주 송도고보로 가서 학교 관악대를 만들었다. 이 후 한국전쟁의 발발로 월남을 하게 되고 제1훈련소 군악대원으로 현지 입대하여 제주지방 학생들에게 관악기 주법을 전수하였다.

1950년대 초반 제주의 관악활동은 4·3 사건과 6·25 동란 및 당시 극심한 기근 등으로 혼란과 실의에 빠진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위안연주회 및 합동순회연주 등을 통해 민심을 달래었다. 또한 제주의 관악활동은 혼란한 사회 속에서 대중문화의 전달 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때이고 그 보급률은 극소수에 머물러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던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정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다. 이에 제주의 관악은 어느 때보다 대단한 관심 속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시기라 하겠다.

1952년 9월 제주 주둔 미군 CAC부사령관으로 취임 한 찰스 E. 길버트 소령은 제주 근무기간동안 한국보육원, 오현고등학교, 제주중학교, 제주도 경찰국등에 악기와 악보를 지원하고 직접 지도까지 하였다. 그는 제주관악의 씨앗을 뿌린 은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에는 보육시설에 운용하였던 관악대의 기록이 있다. 1951년 1월 서울을 철수하면서 한국 공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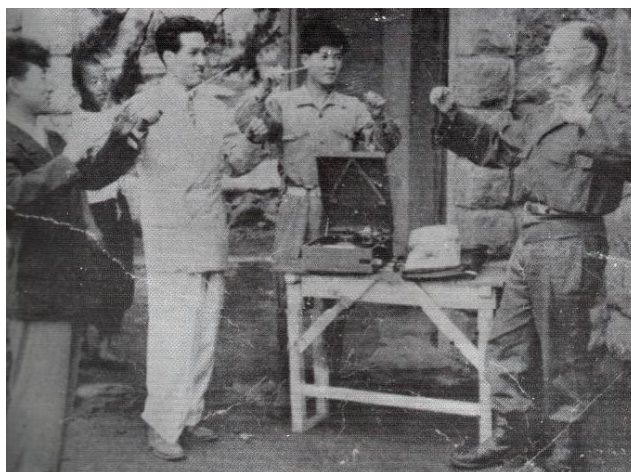
---

18) 부만근, 광복제주 30년, 서울(설문조사), 1982, p. 329.



미군사 고문관인 헤스 대령의 도움으로 많은 고아들이 제주로 수송되었고, 이 때 한국보육원의 원아들을 중심으로 관악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림 1> 길버트 소령의 지휘 지도 모습



출처 : 오현고등학교 음악관

당시 길버트 소령의 도움과 지도로 발족한 한국보육원 관악대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준의 연주를 할 수가 있었던 40인조 이상의 관악대로 일정한 기간 활동한 보육원 관악대로 기록된다. 6·25동란이 있었던 50년대는 제주도에 피난 왔던 많은 음악인들에 의해 음악적 자극을 받았던 시기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영향으로 60년대엔 제주도 음악인들에 의해 창조적 모색이 있었던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sup>19)</sup>

1962년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회가 결성되었고 이러한 전반적인 음악활동 속에 60년대 초반의 관악활동은 오현 중·고등학교 관악대의 활발한 활동으로 새로운 활력 속에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남제주군 서귀읍을 중심으로 몇몇 관악대가 창설되기 시작했다. 1964년 효돈중학교는 12인조 관악대를 창설하였고, 1966년

19) 좌운국, 제주도 음악의 어제와 오늘, 교육제주 제47호, 1988, p.179~p.180

서귀중학교에서는 강시흥의 기증으로 10여인조의 관악대가 창설되었으며, 1967년에 세화고등학교에 20여인조의 관악대가 창설되는 등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60년대의 관악활동은 중반기부터 일어난 여러 관악대의 창설로 말미암아 그 중흥의 기틀이 폭넓게 다져진 시기였다. 그것은 도민 스스로의 의지와 이에 부응한 교포들의 애향심과 50년대에 비하여 관악대의 분포가 확산된 점 등 자주적이며 범도민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 5>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 연혁**

(창단에서 1980년대 초)

연도	내용
1973. 9. 29	한국관악협회 본부 창립
1973. 10. 3	제1차 발기인 총회
1973. 10. 13	제주도지부 결성
1973. 11. 17	제12회 한라문화제 연합악대 연주
1974. 11. 14	제13회 한라문화제 연합악대 연주
1975. 11. 15	제14회 한라문화제 연합악대 연주
1976. 1. 12	임원개선
1976. 10. 9	학도 호국단 예술제 연합악대 연주
1977. 7. 1	부산 Fine Art 실내악단 초청음악회
1977. 11	제16회 한라문화제 연합악대 연주
1978. 4. 22	임원개선
1978. 7. 21	정시에코합창단 연주회후원
1978. 11. 10	서울청소년교향악단 초청연주회
1980. 11. 1	국립합창단 초청연주회
1982. 6. 26	S.C.S 트리오 초청간담회

출 처 :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

1970년대의 제주 음악은 해방 이후 25년여의 기반을 닦고 각 분야마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관악대지도자회 제주도지부(현,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를 결성하여 관악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많은 학교에 관악대가 창설이 되었으며, 이 중 여러 관악대가 도외 경연 대회에 1970년대

이후 10년 동안 모두 8회에 걸쳐 수 차례 수위 입상함으로써 제주도 관악의 수준을 도내 외에 과시하였다. 이 외에도 특징적인 일들은 70년대 접어들어 자주 열리는 갖가지 음악회에 종종 관악 독주와 중주 등이 찬조출연으로 등장한 점과 이때부터 제주도 출신 음악도들이 현저하게 배출되기 시작한 일 등이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악기의 노후 및 지도자의 빈곤과 학교측의 지속적인 지원 부족 등으로 제주여자중·고등학교 관악대를 비롯한 6개교의 관악대가 중단하거나 해체되었다.

그리고 78년부터 인문계 고교가 2개(오현고등학교와 제주제일고등학교)뿐인 제주도에 실시된 고등학교 입학 연합고사는 중학교 관악대 대원 양성의 침체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 겪게 된 몇 가지 어려움을 간직한 채 80년대를 맞으며 제주의 관악은 더욱 견고히 그 기틀을 다져나갔다. 발전하는 사회적 여건으로 국내 여러 지방과의 교류가 용이해져 제주의 음악인들은 자주적으로 국내외의 관악인 및 음악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맺었으며 이들이 지도 배출한 관악도들은 국내의 여러 음악대학에 진학하여 전문 관악인으로 성장하며 저명한 연주단체나 교육일선에서 활약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에 역시 여러 관악대의 창설이 있었는데, 대정고등학교(1982. 6. 창단), 탐라관악합주단(1982. 5. 창단),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1983. 6. 창단), 영진육아원 관악합주단(1983. 12.)이 그것이다.

영진육아원 관악합주단은 1950년 초에 있었던 한국보육원 관악대와 마찬가지로 보육시설의 관악대이다. 세계 기독교 선명회의 지원으로 리듬 합주반으로 발족하여 20여회의 행사에 출연을 하였으며 5회의 정기연주회를 포함하여 1988년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활동을 한 청소년 관악대이다. 영진육아원 관악합주단은 5회의 정기연주회를 마지막으로 ‘영진윈드앙상블’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나, 외부의 지원이 끊겨 폐설된다.

1980년대의 제주도 관악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의 활발한 활동이다. 한국관악협회 제주도

지부는 다양한 초청공연과 격조 있는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관악 발전에 관한 자체연수를 계속 하였다.

둘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관악대의 창설을 꿈꿀 수 있다. 특히 탐라관악합주단은 40여명의 직장인과 학생들로 구성된 제주도 최초의 기성 연주 단체였다. 1985년에는 제주시립합주단으로, 이어 1987년에는 제주시립교향악단으로 창단됨으로써 현재까지 제주도를 대표하는 연주단체로 제주의 음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학교악대로만 의존되던 관악활동이 이로 말미암아 보다 폭 넓은 저변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학교악대에서 활동하였던 학생들 중 관악을 전공으로 택한 학생들이 외는 진학 또는 직장을 가지면서 발전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관악발전을 위한 젊은이들의 의지가 한데 모아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도외 경연 참가의 재개이다. 광주에서 열린 제7회 전국관악제에 제주도 관악대로서는 처음으로 제주농업고등학교 관악대가 참가하였다. 또 진주에서 열린 개천예술제의 합주경연에 한림공업고등학교 관악대가 참가하여 최우수상을 획득하였는데 이것은 6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본도의 활동인 것이었다.

넷째, 1983년 5월 3일 제17회 전도체육대회 개최식에 제주시내 4개의 고교관악대(오현고등학교, 제주농업고등학교, 제주상업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가 연합악대의 편성을 하여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다섯째, 연주회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한 구성이다. 1983년 5월 16일 탐라관악합주단은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가졌는데 제주도 유일의 기성 관악합주단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 음악교육과(현재는 음악학과로 인문대학 소속)의 신설과 제주도 문예회관(1988년 건립)의 건립을 들 수 있다.

#### 4) 현대시대(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 가. 국내의 관악발전

1990년대의 전국 관악의 분야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무엇보다 연주계의 활약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악단의 중심인물이나 음악가 중 상당수가 연주자이거나 연주자 출신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악단 역시 자연히 연주 중심으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의 강점과 전쟁이라는 암울했던 시대에도 연주 분야는 지속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연주자 중 상당수가 유학을 통해 역량을 축척하고, 그들이 귀국하여 한국 음악계의 기반을 조성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들 중 적지 않은 숫자가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기도 하였고, 상당수의 젊은 연주자들이 국제콩쿠르에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하기도 했다.

한편 경제 부흥과 함께 해외의 유명한 음악가들의 내한 공연도 점차 증가하여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연주자들의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연주를 지망하는 사람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연주계의 양적인 성장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서양 음악 자체가 외국 음악이긴 하지만 외국 음악에 대한 지나친 동경으로 수용에만 공급했고, 그것도 고전·낭만주의 음악 중심이었으며, 또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한국 악단은 운영이 되었다. 한국의 악단이 오랫동안 서양의 고전·낭만주의 음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1970년까지만 해도 연주의 다른 분야와는 달리 실내악 분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후 1980년대에는 몇몇 대표적인 연주자들이 한 작가나 작품을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완주하는 도약을 들 수 있고, 또 본격적인 실내악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들은 음악 만들기의 질적 향상을 꾀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청중에게로 다가서는 음악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섰다. 이 시기 관악분야에서는 1974년 서현석을 중심으로 창단 된 서울 윈드앙상블이 우리

나라 관악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이 밖에도 코리아목관5중주단, 서울목관5중주단, 서울브라스앙상블 등의 관 편성의 실내악 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음악 활동들은 콘서트 홀이 아닌 작은 홀에서 자유롭게 연주 할 수 있는 실내악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연주였다.

그런가 하면 1980년대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계기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과 직접 만나는 교류의 장을 열었다. 특히 KBS로 주관 부서를 옮겨 진행 된 서울국제음악제가 이런 변화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다. 19세기 서양 오페라 중심의 문화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도 있었지만, 오페라계 내부에서도 예산의 절감은 물론 음악적 실험을 펼쳐 갈 수 있는 소극장 오페라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의 변화 중 두드러지는 현상은 음악 관련 전문 잡지들이 창간되었다는 사실이다. ‘피아노음악’이 82년 4월에 창간되었고, ‘객석’이 84년 3월에, 그리고 ‘음악동아’가 84년 4월에 창간되었다. 그 동안 문예 연감에서 대략 한 해의 연주계와 음악계 대소사를 총 정리하던 때와는 달리, 그때그때 음악계의 중요한 일들이 이 잡지들을 통해서 기록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음악계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1973년에는 장충동 국립극장이 개관을 하고, 78년 서울시가 주관하는 세종문화회관이 개관하여 명실 공히 전문 연주장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이후 1987년 1월 재단법인 예술의 전당이 건립되었고, 이 셋 국립극장,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은 한국의 대표적인 연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현대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80년대의 음악계는 마치 1980년대의 정치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갈등과 논쟁이 양산 된 시대였다. 반면에 90년대는 80년대의 갈등의 접점들이 상호 문제점들을 점검하면서 이를 다시 정리하는 시대였다.

1990년대에는 연주 창작 학계 등 영역별로 분화된 구조를 극복하려는 수평적인 활동이 활발해 졌고, 수직적으로는 모든 분야의 대중화가 활발히 일어났다.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폭 넓게 이루어진 것처럼 음악 전반에 대

한 대중의 소유 의지도 그 폭이 현저히 넓어져 공급도 다양해지게 된 것이다. 특히 연주계의 크고 작은 기획연주는 기획의 목표를 충분히 음미할 정도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90년대에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청중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실내악이 다양하게 많아지면서 그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도 90대의 특징이다.

1990년대에는 음악 및 예술 교육에 하나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도 있었다. 1993년 문화부 산하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가 탄생함으로써 예술교육이 필요로 하는 심도와 유연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음악계에서도 국제적인 교육을 통해 성장한 젊은 음악가들이 해외 콩쿠르에 도전해 우승을 차지하는 예가 늘어났다는 것은 국내 교육의 변화에서 온 소득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음악 교육의 제도 및 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탄생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나 예고의 탄생이 가져 온 음악 교육의 변화만큼이나 21세기 한국 음악 교육의 전환을 알리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다.<sup>20)</sup>

#### 나. 제주의 관악발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도 음악활동의 양상도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제주시립교향악단과 제주시립합창단, 서귀포시립관악단과 서귀포시립합창단 등 시립음악단체들의 활동, 제주관광대학교와 제주한라대학의 음악과 신설, 대학의 음악관련 학과에서 배출된 음악인들의 활동, 새로운 연주단체들의 잇따른 창단과 활발한 활동, 각종 국제음악제의 참가 및 개최 등 제주음악은 전에 없는 열기로 구색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관악에서 출발한 제주도의 음악은 문화·예술인구의 급속한 저변확대와 시대적 분위기에 부흥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 보인 시기였다.

---

20) 방일영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총서, 우리양악100년, 서울, 2001, p. 342

한편 한국관악협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전국관악제가 제17회 대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관악제로 명칭을 바꾸어 1992년 제주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는 제주에서 최초로 열린 전국 규모의 관악 축제였다. 더구나 이 행사는 국내 관악사상 가장 큰 규모와 내용으로 열렸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관악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연합악대 구성의 성과가 꽃을 피운 것은 연주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1998년에 개최되었던 제79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나타났다. 이전까지의 전국체전과는 달리 전국체전사상 처음으로 연합악대를 활용함으로써 체전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대규모의 연합악대가 선수단 입장에서부터 개·폐회식, 식 중 행사 전 과정을 담당하여 제주도 관악인들의 축적된 역량을 살려 특색 있는 연출로 제주 관악의 우월성을 전국에 과시했다.

대한민국관악제와 여러 해에 걸친 제주관악제의 성공적 개최, 각종 행사에서의 연합악대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1994년에는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제주연합악대가 참가하게 된다. 이때 참가국 관악단체들과의 정보 교환과정에서 제주에서의 국제적인 관악축제를 구상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 국제관악제의 성공적 개최는 단연 1990년대 본도 음악계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수많은 축제들이 알맹이 없는 축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제주국제관악제는 국내에서 특성화로 성공한 몇 안 되는 축제 중의 하나이다.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의 성공적 개최 이후 제주고교연합악대는 1996년 홍콩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도 참가하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제주국제관악제도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개최되는 등 국제적인 여러 활동을 통한 제주 관악의 위상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제주국제관악제에서 세계적인 관악작곡가 알프레드 리드를 초청하여 ‘위대한 작곡가의 작품 조명’ 주제의 연주를 위해 1999년 4월 제주페스티벌밴드(현재의 명칭은 제주윈드오케스트라)가 조직되었다. 제주시립교



향악단의 관악 주자들과 서귀포시립관악단 단원들을 주축으로 한시적인 단체로 출발하였으나 제주국제관악제와 제11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2000년, 대만 치아이시)와 제12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2002년, 중국 광저우) 등에 참가하며 제주 관악의 위상을 알렸다.

1998년 2월 서귀포시립관악단의 창단과 함께 제주대학교 부설고등학교에 교악대가 창설되었고, 뒤를 이어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교악대(2000년), 제주방어사령부 해군군악대(2001년)와 제주플루트앙상블(2001년)이 창단되었으며, 또한 1995년 도내 금관악기 연주자와 대학생을 모체로 창단되었다가 활동이 주춤했던 금관앙상블인 제주브라스앙상블이 2004년에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리고 2000년에 창단되어 활동하던 제주심포닉밴드가 제주팝스앙상블로 이름을 바꾸어 2004년 4월에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같은 달 브라스앙상블 ‘오름’이 창단연주회를 열기도 하였다.

2004년 5월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로 구성된 제주청소년관악단이 창단 연주회를 가졌다. 그리고 2006년에 와서는 학교 관악단들이 속속히 창단 되었는데 5월 초에 제주서중학교가 30인조의 관악부를 창단하고(창단 연주회 12월), 6월에는 제주의 초등학교 중 유일의 관악부인 제주화북초등학교가 42인조 편성으로 관악합주부를 창단했다. 그리고 신성여자중학교 관악부가 30인조의 구성으로 12월에 창단 될 예정이다.

매년 제주국제관악제가 개막되기 이틀 전 열리는 제주관악제는 1991년부터 시작되어 모든 제주 관악인이 참여하는 전통 있는 축제로 도내의 많은 관악단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제주국제관악제가 있게 만든 사업이기도 하다. 매해 어려운 예산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지만 제주관악협회의 집행위원의 협력으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 2. 관련 기관 현황

### 1)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

1973년 10월 13일 한국관악대지도자협회(현,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지부장 고봉식)로 발족되어, 관악의 확대를 꾀하면서 관악을 통해 제주도의 음악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의 주요사업으로는 제주관악제 개최, 관악연주인 및 단체 연주회 후원과 각 학교 관악대 지도강사 파견 등이 있다. 1984년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제주시내 4개 고교 연합악대를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하였고, 제주시내 인문고교 2개교에서 관악대가 조직되면서 청소년을 위한 관악수련회, 관악대 친선 체육대회 등을 열어 수준향상과 결속을 다졌다. 그리고 1992년 8월 20일, 제17회 대한민국관악제를 제주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1994년 일본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제주고교연합악대를 참가시켰다. 한편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는 매해 여름 양일간에 걸쳐 제주도내 중·고교 관악단 및 대학관악합주단, 그 외 여러 관악 단체들로 구성하여 ‘제주관악제’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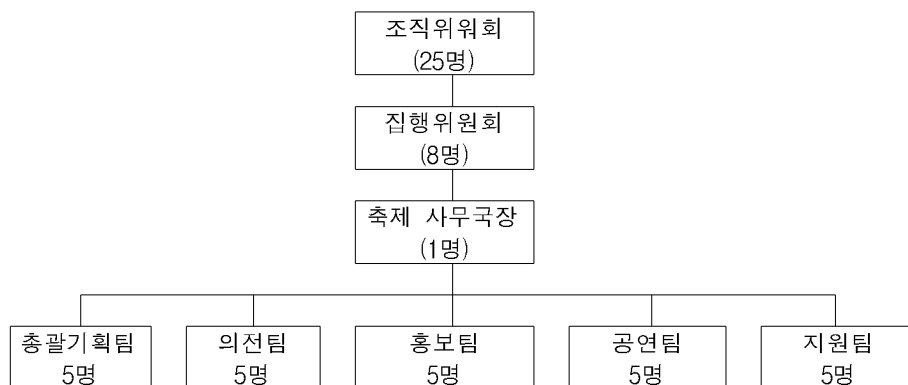
### 2)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는 현재, 제주시와 함께 제주국제관악제의 주최가 되고 있다. 1995년 제주국제관악제를 개최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몇몇 제주 관악인들이 모여 외부의 도움 없이 순수한 그들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는 제주 관악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그 명성을 지속시키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국제관악제를 통하여 제주도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연대감을 고취하고,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며,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관악 전문축제로 정착시켜 나가고있다.

축제 추진 구성인원은 58명 내외로 구성되며, 조직위원회 25명, 집행위원회 8명, 축제사무국 25명 등이다. 조직위원회는 축제전체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위원회는 축제의 실무 위원회로서 축제 개최 제반사항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세부인원은, 축제 전반에 관한 기획 및 팀별 업무를 조정하는 총괄기획팀 5명, 팀별 체류기간 동안 관리 및 의전 업무를 담당하는 의전팀 5명, 축제 국내외 홍보 및 축제 분위기 조성 업무를 맡는 홍보팀 5명, 그리고 각 축제장 운영 및 행사 진행하는 공연팀 5명, 전체적인 인력관리 및 소품 확보, 악기 관리 담당인 지원팀 5명이다. 종사요원에 대한 지원은 교통비 및 식비정도이다.

**<표 6> 조직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를 운영한다. “자원봉사자들이 제주 국제관악제를 키워온 힘”이라 할 정도로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자원봉사자 업무는 공연장 안내 및 질서유지, 무대 관리와 보조축제 지원, 팀 인솔, 통역, 사회 등이다.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와 식비, 기념품등이 지급된다.

**<표 7> 자원봉사자의 분야 및 인원**

구 분	계	공연장질 서유지	공연장 안내	팀 인솔	무대관리	보조축제 지원	통 역	사회자
모집인원	249	35	28	50	70	22	30	14
비 고	-	공연장별 5	공연장별 4	팀당 1	공연장별 10	축제 당 2	-	공연장별 2

### 3) 교육 기관

#### 가. 초등학교

제주도내 초등학교의 관악 활동은 파트별로 다양하고 고르게 갖추어진 중·고등학교 관악단과는 달리 초등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리코더와 플루트, 클라리넷, 색소폰등의 목관악기와 타악기 등의 편성으로 이루어진 소 합주단의 형식이다.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2003년부터 지방음악 저변확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는 학생들에게 합주를 통하여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세계적인 음악인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닦는 첫걸음이라 하겠다. 이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팀들의 합주능력이 매해 발전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합주단 편성에 관악기들이 사용되고 있는 모습은 제주관악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2003년 7월 개최되기 시작하여 올해로 4회를 맞은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의 참가팀은 다음과 같다.

**<표 8>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 참가팀**

연도	참가팀
2003	남광초교, 동광초교, 대정초교, 서귀중앙초교, 신광초교, 인화초교
2004	남광초교, 동광초교, 대정초교, 서귀중앙초교, 신광초교, 인화초교
2005	남광초교, 동광초교, 대정초교, 서귀중앙초교
2006	남광초교, 동광초교, 동화초교, 서귀중앙초교, 인화초교, 화북초교

## 나. 중학교

### ① 서귀포중학교

서귀포 중학교는 1966년에 재일교포 강시홍의 관악기 기증으로 악대를 창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많은 관악인을 배출하였다. 25, 26, 27회의 개천예술제에 참가하여 관악합주부문 최고상을 수상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지원, 정기연주회 개최등 활발한 활동으로 서양음악 발전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이 악대는 현재까지 활동하는 전국의 몇 안 되는 중학교 악대 중의 하나이다. ,

### ② 제주서중학교

제주서중학교는 2006년 5월 초에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의 후원에 힘입어 김성주를 지도교사로 하여 30인조 관악부가 창단되었다.

2006년 8월 제주에서 개최 된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십대회에 참가하였으며, 12월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창단연주회를 가질 계획에 있다.

### ③ 신성여자중학교

신성여자중학교 관악부는 여중생 30인조 구성으로 2006년 10월에 창단(지도교사 송건중)되어 창단연주회를 비롯한 활발한 활동을 계획중이다.

## 다. 고등학교

### ①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제주농업고등학교(현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의 음악교육은 공립제주농림학교 1910년 5월 2일 개교부터 시작되었다. 1920년 하모니카 합주단이 있었으며, 해방 후 제주농업고등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은 강계돈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애월중학교에서 관악대를 가르치다 1947년 10월 4일에 제주농업고등학교로 부임하여 제일동포 독지가의 도움으로 15인조 관악대를 창

설하게 된다. 그 이후 제주도 최초 관악대인 제주중학교 관악대를 지도했던 김국배의 노력으로 제주농업고등학교 관악대는 1948년 관덕정 광장에서 첫 발표회를 열게 되었다. 다음해에는 861부대 창설기념식 행사에 제주중학교와 합동연주를 가진 바 있으며 1950년 6·25전쟁 직후 부두에서 출정 전송행사를 가지기도 했으나, 4·3사건과 6·25전쟁으로 악기가 분실되고 대원들도 학도군으로 출정하여 거의 해체 상태에 이르렀다. 전쟁 이후 21인조로 재 결성하여 활동하였으며 학교 내에 있던 한국보육원의 밴드와 함께 미군의 CAC사령관 길버트소령의 도움을 받는다. 1975년 제주도의 지원금과 동문들의 악기 기증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 ② 오현고등학교

오현고등학교는 조선시대에 절해고도인 제주에 유배되었던 다섯 선비의 얼이 담긴 오현(五賢)이라는 이름으로 1951년 개교하였다. 관악대는 당시 음악교사인 고봉식선생의 주도로 학생들의 모금운동과 미국인 찰스 E. 길버트소령의 도움으로 1952년 9월에 창설되었다.

제주 오현고의 교악대 창설 모태는 개교 이전인 49년 오현초급중학교 당시 음악 교사였던 고봉식(83) 전 제주도교육감의 증언으로 확인됐다. 교악대 창설은 유엔민간지원단 제주지역 부단장으로 부임한 찰스 길버트소령이 작은북 2점과 플라스틱 신호나팔 6점을 오현초급중학교에 기증하면서 이뤄졌다. 고 전 교육감의 주도로 모금운동이 이뤄지고 51년 6월 같은 학교 교사였던 허두구씨가 부산에서 악기를 구입한 데 이어 52년 6월에는 길버트 소령한테 일부 악기를 기증받았다. 이 악기들로 연습한 끝에 52년 9월 마침내 교악대가 창설됐다.

고 전 교육감은 “악기와 악보가 없는 상태에서 교악대를 만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하이오주립대 음대 교수였던 길버트 소령이 부임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그가 미국에 갈 때마다 악기와 악보를 갖고 와 학교에 건네고 2년 동안 매주 토요일에 교악대를 지도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길버트 소령은 오현고 교악대뿐 아니라 한국보육원 관악대를 비롯해 제주시내 6개 관악대를 순회지도하고, 관악단 지도교사들한테 지휘법을 가르치는 등 제주도의 관악 발전에 초석을 다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한겨레신문, 5. 27. 연합뉴스 사회.

창설이래, 오현고등학교 관악대는 학생들의 취미신장과 정서순화는 물론 문화적 환경이 열악한 제주도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의식행사에 참여하여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50여년 오현 관악대의 활동은 제주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1953년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4회 영남 예술제(현 개천예술제) 관악 경연에 처음으로 출전하여 최고상을 수상한 이래 1973년까지 16연승을 비롯하여 1956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주최 전국 고교관악경연대회 은상 수상등 화려한 입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림 2> 오현고등학교 관악대



유엔민간지원단 제주도 부단장인 길버트 소령(맨 오른쪽)이 1952년 7월8일 오현고에서 고봉식 음악교사와 교악대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미국 내셔널아카이브 소장.

1994년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와 1996년 홍콩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한국고교연합악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였으며, 1998년 3월에는 일본 평안여자중고등학교 취주악부와 한·일 고등학교 친선음악회를 갖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매년 9월에 열리는 개교기념 정기연주회는 제주도내 기악연주회의 효시로써 제주 관악과

청소년 문화를 선도해 왔으며, 1984년 500여명의 교악대 동문들의 의지로 시작된 동문음악회도 11회에 이르고 있다.

### ③ 대정고등학교 관악대

대정고등학교는 6·25전쟁 중에 개교가 되어, 1954년 16인조의 관악부를 창단하게 된다. 당시 전란중에 피난 온 진, 김금환 선생(연세대 교수)과 육군 제1훈련소 김강섭씨를 중심으로 많은 군악대원들의 지도와 조력을 받으며 성장 발전하다 그 맥이 1955년 이후 서서히 끊어지게 된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1981년 재일본 대정 출신 독지가들에 의해 44인조의 관악대로 재창단 되어 각종 지역 내의 행사 및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대정고등학교 관악대(지도교사 윤정택)는 ‘제30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2005년 9월 1일)에서 은상을, ‘제31회 대한민국관악경연대회’(2006년 9월 4일)에서 금상을 수상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대정읍 관내 주민을 위한 ‘귀향음악회’를 열고, 제주도내 관악대와 음악관계자를 대상으로 ‘고향사랑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지역문화 창달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제주제일고등학교 관악대

1971년 12월 4일 학교자체에서 악기를 구입하여 24인조의 편성으로 제주 시민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날 5일에 국민교육헌장 선포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창단 35주년을 맞이하는 정기예술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학교 내의 행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백호기 응원과 원보 훈련 및 대내·외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 ⑤ 제주상업고등학교 관악대

제주상업고등학교 관악대는 1976년 6월 40인조로 창단하고 그 다음해인 1977년부터 매년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



한 1993년 제주도 최초로 일본 오단이 고교와 교환 연주회, 1994년 일본, 1996년 홍콩 아·태관악제에 제주도 연합악대로 참가하는등 제주도 내외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⑥ 한림공업고등학교 관악대

한림공업고등학교 관악대는 학생들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제주도 교육청을 비롯하여 각제에서 후원을 받아 1979년 3월에 창단하였다. 초창기 관악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해 6월 재일교포의 도움으로 악기를 기증받았다. 창단 4년만인 1982년 개천예술제에 참가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983년에는 전국관악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1984년에는 제주에서 최초로 관악대 내에 현악 합주부를 창단하여 운영하였으며, 1994년 일본 하마마쓰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와 1996년 홍콩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에 고교연합악대의 일원으로 참가하였다. 1997년에 북제주군과 도교육청의 지원으로 관악대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며, 매년 각종 대내외 행사와 제주순회 연주회 및 한수풀음악제 공연을 통하여 도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2005년에 북제주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음악실 및 악기를 보강·확충하여 한림에서 처음 개최된 도민제전에 한림공업고등학교 관악대를 중심으로 한 연합악대가 구성되어 그 면모를 보여 주었다.

#### ⑦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대

1983년 6월 23일 47인조로 제주시민회관에서 창단연주회를 갖고, 그 해 9월 10일에 88인조의 마칭밴드로 재편성하여, 1984년 5월에 개최한 제13회 전국소년체전 선두악대로 참가하였다. 또한 제34회(1984. 11. 5), 제35회(1985. 11. 4), 제36회(1986. 11. 5) 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4일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여 도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1987년 9월에는 제주도 순회연주회를 가졌

으며, 88 서울 올림픽 성화 봉송 제주공황 퍼레이드 출연으로 제주를 대표하는 관악대로 성장하였다. 1996년 11월 24일에는 중국 심양에서 열리는 아시아 지역 최대의 마칭밴드 페스티벌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하였고, 1998년 11월 22일에는 대만에서 열린 대북 국제마칭 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제주의 위상을 높였고, 1998년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의 취타대와 함께 대규모의 마칭퍼레이드를 선보여 전국적 유명세를 타기도 하였다. 2006년 8월에는 제주에서 개최된 세계마칭밴드 챔피언십에 참가하였고, 그 외에도 각종 공식행사 선도 관악 및 퍼레이드 출연을 도맡으며 도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 ⑧ 대기고등학교 관악대

대기고등학교 관악대는 1985년 11월 22인으로 시작을 하였다. 1986년 백호기 축구대회에서 첫선을 보였으며, 1989년 9월 2일에 KBS배 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이외에 전국민속경연대회, 전국체전, 제주도민체전 등 각종행사에 참여하였으며, 국제관악제 및 제주관악제 등에 다수 출연하여 호평을 받았고, 지난 해 11월에 제17회 정기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 ⑨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관악대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는 1986년 5월 29일 동창회에서 50주년 기념 추진사업 주요일환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동창의 후원과 모금활동을 통하여 36인조 관악대를 창단하여 창단연주와 발대식을 치렀다. 이듬해, 영천축제를 개최하며 매해마다 꾸준한 정기연주회를 가져 왔고, 교내 행사 연주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며 서귀포 시민과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많은 기여하고 있다.

⑩ 남녕고등학교 관악대

남녕고등학교 관악대는 1985년 2월 학교법인 남녕학원 설립인가를 받아 1986년 3월에 개교하였다. 1987년 3월 관악대 창단 계획을 수립하고, 55점의 악기를 구입하여 1987년 10월 5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해 나갔다. 현재 관악대는 학생들이 입시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자신의 특기 신장과 정서 순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 하고 있다. 신입생을 위한 환영 음악회, 개교기념 음악회인 청송음악회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주관악제 및 그 외 각종 문화행사와 의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⑪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관악대

제주대학교 부설고등학교 관악대는 1997년 3월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창단되어 올해로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4년 8월 제주관악제에 참가하여 전교생들에게 사대부고 관악대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 주었고, 그 후 매년 여름 제주 관악제에 참가하는 등 정기연주회를 통해서도 사대부고의 관악대 위상을 한껏 드높이고 있다.

⑫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관악대

새로운 학교 문화의 창출이라는 취지로 문화의 불모지와 같았던 동·남부 지역에 문화의 꽃을 피우고, 학생들이 음악 특기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5월 31일 제주도교육청과 남제주군, 그리고 성산수산고등학교(현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동문회의 도움으로 관악대가 창단되었다.(초대 지도교사 김재용) 다양한 음악장르를 표현하기 위해 악단 구성을 콘서트 밴드와 재즈 빅밴드로 편성 운영하였다. 특히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가 자랑하는 재즈 빅밴드는 제주는 물론 전국에서도 흔히 찾아 볼 수 없는 편성으로 정통 재즈에서부터 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표현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라. 대학교

### ①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1981년 사범대학 소속의 음악교육과로 신설되어 중등학교 음악담당교사를 배출하고 있었으나, 1987년 인문대학 음악학과로 개편되어 전문음악인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의 정서함양 및 음악활동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음악학과의 교육과정은 음악의 전 분야에 걸쳐 이론과 실기로 나뉘어 운영 되는데, 이론분야는 전문 음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사, 철학, 음의 구조 및 분석에 이르기까지 타 대학 음악학과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는 모든 교과목을 설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국악의 개론과 실기를 개설하여 서양음악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망라한 음악의 전 분야에 걸친 이해와 함께 전문성을 꾀하고 있기도 하다. '97학년도에는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음악교육 분야에서도 폭넓은 연구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05학년도에는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음악가 양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 ② 제주관광대학 음악예술과

1996년에 개설된 제주관광대학 음악예술과는 국제자유도시의 상징인 관광과 21세기의 화두인 문화예술을 연계한 과로서 음악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전문음악인을 양성하는데 그 교육 목표가 있다. 음악예술과에는 클래식전공(피아노, 관현악, 타악, 성악, 작곡, 지휘등), 실용음악전공(작곡, 보컬, 건반, 관현악, 타악, 음반제작), 한국음악전공(관현악, 기악, 판소리, 민요등)이 있으며 실기 위주의 교과과정(전공실기, 부전공실기, 앙상블, 연주, 합창, 합주등)으로 운영되며 특수교육(아마데우스 클래스, 예술경영등) 교과목이 개설되어져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up>21)</sup> 1996년 이후 매년 정기연주회 및 교수음악회, 앙상블

---

21) 제주관광대학 음악예술과 홈페이지, <http://music.ctc.ac.kr/>

음악회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제주의 청소년 음악도를 위한 사업으로 탐모라 학생음악콩쿠르를 열어 제주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전문연주자로서의 자질을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음악적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제주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키우며, 창의력을 개발하고 학생 중심의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육성시키고자 2004년부터 제주청소년실용음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 ③ 제주한라대학 생활음악과

제주한라대학 생활음악과는 음악을 작곡, 연주, 감상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전문지식을 갖춘 음악인을 양성하며, 덕성과 지성 및 풍부한 감성을 겸비한 전문 음악인을 양성한다는 교육목표로 지난 1994년에 개설되었다. 졸업 후에는 학교·학원 등의 음악교육 현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등의 연주 단체, 방송·광고음악 관련 단체등에 취업을 하고 있다.<sup>22)</sup> 매년 학생들이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대외적으로 발표하며, 각 개인의 연주 능력 증진을 도모하고 학과의 학구적인 면모와 대학의 학문발전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는 목적으로 정기연주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교수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여 우수한 교수진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연주의 모범을 보여주는 교육적인 연주회인 교수 음악회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며 타 대학과의 경쟁력을 높이 고자 하는 각종 세미나 및 공개강좌 개인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의 유명한 교수를 초빙하여 여름 음악 캠프와 함께 피아노 및 관악에 관한 강좌와 공개 레슨이 한국일보와 매일 경제 신문사가 공동 주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

---

22) 제주한라대학 생활음악과 홈페이지, <http://www.halla-c.ac.kr/department/DPAP01/>

#### 4) 연주 단체

##### 가. 국공립 단체

제주도에는 도 본청에 2개의 예술단(무용단, 오페라단)과 2개의 시(제주시, 서귀포시)에 각 2개의 예술단(제주시립교향악단, 제주시립합창단, 서귀포시립관악단, 서귀포시립합창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기 활동하고 있다. 단, 지난 2005년에 도의회에서 설립이 인준된 오페라단은 인원의 확보도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활동조차 없는 현실이다.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천혜의 고도인 제주는 예로부터 사람마다의 술한 애환이 서린 무속과 민속을 자연스레 예술과 접목시켜 제주만의 독특한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켜 왔다. 제주시립교향악단은 1985년 故 이선문 초대지휘자에 의해 창단되어 지금까지 약 500여회의 각종 연주회를 통해 제주 공연문화를 대표하는 중심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1985년 창단된 제주시립합창단은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항상 다양한 레퍼토리와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제주의 대표적인 합창단이다. 제주시립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기획 및 순회연주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예술창달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타 시도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경쟁과 우정을 나눔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합창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전국 최초로 창작뮤지컬 ‘자청비’를 기획 공연하여 제주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제주시향과 공동 제작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공연함으로써 그 역량을 보여 주었다. 2002, 2004년 서울교향악축제에 제주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통하여 한국 속의 제주시립합창단으로 한 발 더 나아갔으며 2002년, 2003년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예술단이 공동제작한 창작오페라 ‘백록담(대본 차범석, 작곡 김정길)’을 공연함으로써 음악적으로 한층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다. 23)

### <표 9> 제주시립합주단(현, 제주시립교향악단)의 활동

창단부터 1980년대 후반

일 정	내 용
1985. 1	제주시립합주단 창단
1985. 3. 22	창단연주회 - 제주시민회관
1985. 9. 1	제2회 정기연주회 - 제주시민회관
1985. 12. 2	세계 청소년의 해 합동연주회 - 제주시민회관
1986. 4. 7	제3회 정기연주회 - 제주시민회관
1986. 8. 1	도제 실시 40주년 기념연주회 - 제주시민회관
1986. 10. 13	제4회 정기연주회 - 제주시민회관
1987. 4. 6	신춘음악회(관현악편성) - 제주시민회관
1987. 7	제1회 Summer Music Camp - 제주종합경기장

출처 : 제주시청 홈페이지

서귀포시립관악단은 지방자치제도 실시이후 최초의 시립 전문연주단체로 탄생하였다.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관악단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관악 100년 사에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서귀포시립관악단은 창단 1년 동안에 30여 회의 각종 연주 및 행사를 통하여 제주시의 새로운 연주단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시립예술단으로서의 활동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97 제주국제관악제 (Summer Band Festival Cheju '97) 참가, 대만 가의시 국제관악제(嘉義市國際管樂節 Chaiyi City Band Festival)에 초청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서귀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여 왔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기존의 서귀포시립합창단에 서귀포관악합주단을 흡수하여 서귀포시립예술단으로의 창단을 구상하게 되었으며,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주며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으로서 서귀

23) 제주시청 홈페이지, 제주시립합창단 소개, <http://www.artjeju.or.kr/sirip2006/>

포시립관악단 창단을 정책으로 결정('97. 10. 13)하게 되었다.

이상철 제주국제관악제 집행위원장은 “창단 이후 규모있는 전문 관악단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랐지만 정체가 있어 아쉽다”며 “보다 수준 높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50명 정도의 상임단원이 필요한 만큼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서귀포시와 제주도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공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서귀포시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던 제주도에 넘어간 셈이다. 24)

서귀포시립관악단은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시립 관악연주단체로서 관악의 특성을 살린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권을 신장시켜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행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10> 서귀포시립관악단의 연도별 연주 실적

2002년 11월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연주회수	37	45	46	43	23	194

출처 :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서귀포시립합창단은 1987년에 창단되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중심으로 제주도민을 비롯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제주도 각 지역의 문화 연주시설과 각급 학교 등에서 연주회를 개최하고, 아름다운 합창과 성악의 선율을 선사함으로써 도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서귀포시립합창단은 전문예술단체로서 대내외적인 각종 연주회를 통해 합창단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며, 지역문화예술 창달의

24) 제주일보, 2006년 7월 28일자, 음악의 불모지서 관악의 메카로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내외 유명 연주단체와의 합동연주 및 솔리스트 초청 협연 등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 나. 민간 단체

### ① 한라윈드앙상블

시민밴드‘한라윈드앙상블’은 1993년 도내 13개 고교의 관악대 출신들을 주축으로 창단이 되어 10여년 간의 왕성한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밴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 내었다.

창단 10년 동안 연간 4회의 정기연주회를 거른 적 없이 지금까지 30회가 넘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외에도 팝스콘서트, 별이 빛나는 밤의 콘서트등 다양한 정기공연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청주, 익산 등의 국내 도시와의 친선교류연주회 및 일본과도 세 차례의 국제교류콘서트를 갖은 바 있다. 레퍼토리도 클래식과 팝송, 민요 등을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 엄선하며 여름마다 열리는 음악축제, 각종 도민 행사, 유명 호텔의 페스티벌등의 초청연주회를 지금까지 200회 이상 가졌다. 그리고 2005년에는 제주국제관악제의 부속 행사인 ‘동호인 관악 토크’에 참가하여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 <표 11> 한라원드앙상블 주요 연혁

일시	세부내용
1993. 6. 7	창단연주회 - 제주도문예회관대극장
1993. 12. 3	대구 제주 일본관악단 친선연주회 - 대구 대백프라자 콘서트홀
1993. 12. 4	부산교향취주악단 창단10주년기념연주회 초청연주-부산시민회관
1994 ~ 2005	제2회 정기연주회 ~ 제31회 정기연주회
1994. 10. 3	제33회 한라문화제 음악제 초청연주 - 탑동 야외무대
1995 ~ 2005	제1회 팝스콘서트 ~ 제10회 팝스콘서트
1995 ~ 2004	제1회~제10회 별이 빛나는 밤의 콘서트
1995. 8. 19	95' 제주국제관악제 -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1995. 9. 2	청주교향취주악단 초청연주회 - 청주예술문화회관
1995. 10. 11	제34회 한라문화제 관악제 - 제주해변공연장
1996. 4. 13	한일친선교류연주회 - 日本京都長岡京記念文化會館
1996. 10. 26	청주·제주 친선교류연주회 - 청주 예술의전당
1997. 8. 19	97'제주국제관악제 - 함덕해수욕장 특설무대
1997. 11. 1	대전·제주 친선교류연주회 대전 청소년수련원
1998. 6. 20	청주·제주 친선교류연주회 - 청주 예술의전당
1999. 8.13~14	99' 제주국제관악제 - 제주해변공연장, 천지연야외무대
1999. 10. 9	취주악 국제교류콘서트 - 日本岡山縣倉敷藝文館
1999. 10. 10	일한 친선국제교류콘서트 - 日本岡山縣里庄總合文化홀
2001. 5. 12	청주·제주 친선교류연주회 - 청주 예술의전당
2001 ~ 2003	제주관악제 참가 - 제주해변공연장
2002. 10. 12	익산·제주 친선교류음악회 - 익산시 스포문화회관
2003. 2. 8	장애인을 위한 자선 음악회 -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2003. 5. 7	창단10주년 축하음악회 '제주·익산친선교류음악회'-제주문예회관
2004. 5. 22	익산·제주친선교류연주회 - 익산시 스포문화회관
2004. 8. 6	日本熊本國際靑少年音樂 페스티벌 2004 - 日本熊本縣立劇場
2004. 8. 7	일한친선문화교류음악회 -日本熊本縣久木野村四季의숲
2004. 8. 13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 - 제주도문예회관대극장
2005. 7. 30	한일친선교류연주회 "파도를 넘은 우정의 팝스콘서트" - 도문예회관
2005. 8. 10	05' 제주관악제 - 해변공연장
2005. 8. 14	05' 제주국제관악제 동호인 관악콩쿨 금상 - 제주문예회관대극장
2005. 9. 24	토요박물관산책 "찾아가는 박물관음악회" - 국립제주박물관 야외무대

## ② 제주브라스앙상블

제주브라스앙상블은 제주의 대표적인 실내악 전문단체로서 1995년 3월에 도내의 금관악기 전문연주자와 대학생들 중심모체로 구성되었다.

틀에 박힌 고정적인 무대 연주를 탈피하여 제주전역을 무대로 활동하며, 고전에서 현대까지의 다양한 레퍼토리와 대중에게 친근감을 주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객들과 함께 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호른 6명, 트럼펫 6명, 트롬본 6명, 튜바 2명, 타악기 2명 총 22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12> 제주브라스앙상블 주요연혁**

일시	세부내용
1995. 3	창립총회 및 창단식
1996. 8	제주관악협회 주최 "96 제주관악제"출연
1996. 12	창단연주회(도문예회관 대극장) 주관
2001. 5	제주연극협회 주최 "전국연극제 개막" 축하 공연
2001. 10	서귀포시 주최 "이중섭 예술제 야외음악회" 출연 및 주관
2001. 10	서귀포음협주회 "청소년예술제" 출연
2001. 10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최 "문화의 날 기념음악회" 출연
2001. 12	공연기획 아티스트 주최 "제1회 제주실내악 축제" 출연
2002. 4	제주예총 주최 "예술인의 날 축하 작은음악회" 출연
2003. 9	공연기획 테러 J 주최 "2003 거리에예술제" 출연
2003. 10	제주예총 주최 "제42회 탐라문화제 창작뮤지컬" 반주
2003. 12	제주음협 주최 "2003 제주음악제"출연
2004. 3	한림공고 "교악대 활성화 및 신입생환영음악회" 주관
2004. 4	제2회 정기연주회
2004. 9. 11	제주한라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2004. 10. 22	제주청소년관악단 제2회 정기연주회 우정출연
2004. 11. 24	제3회 정기연주회 -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2005. 7. 16	제주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찬조출연
2005. 12. 23	제4회 정기연주회 - 제주도문예회관 대극장
2005. 12. 27	제주제일고 개교 50주년 기념 경축음악회 출연
2006. 7. 24	한국예총 제주도지회 주최 '산지천의 예술 향기' 출연
2006. 9. 15~16	가족사랑음악회 - 제주도문예회관, 국립중앙박물관

### ③ 제주팝스앙상블

제주팝스앙상블은 지난 2000년에 창단 된 제주심포닉밴드가 2004년 1월에 단원의 확충과 장르의 다양화를 목표로 발전되어 개명된 음악단체이다. 제주팝스앙상블은 음악회가 특정 계층의 점유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을 위한 음악회”로 정착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편성(대규모 풀편성, 빅밴드, 재즈앙상블)의 다양한 음악장르로 정기공연 및 재즈페스티벌, 각종 축제행사와 청소년 음악회, 관광지순회음악회, 농어촌 순회음악회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표 13> 제주팝스앙상블 주요 연혁

일시	세부내용
2000. 06	창단연주회 (도문예회관 대극장)
2001. 04	제주시/제주에총 주최 “벚꽃축제-관악향연의 밤” 출연
2001. 07	제주시 주최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출연
2001. 08	서귀포음협 주최 “2001 서귀포여름음악축제” 참가
2003. 12	제주도문예진흥기금 선정 “관광지순회음악회
2004. 04	제주팝스앙상블 제2회 정기연주회 및 제1회 팝스콘서트
2004. 05~06	관광지 순회 음악회(목관아지, 성산일출봉, 신영영화박물관)
2004. 07. 24	토요상설예술무대(제주도 문화진흥원 주최)
2004. 07. 28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제주시해변공연장)
2004. 08. 06	제1회 표선백사 재즈페스티벌
2004. 08. 11	2004 제주관악제 출연
2004. 09. 06	한마음 푸른음악회(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2004. 12. 05	제3회 정기연주회- 팝스콘서트(문예회관대극장)
2004. 12. 16	대입수험생을 위한 팝스콘서트(제주학생문화원대극장)
2005. 07. 21	팝스콘서트<해변으로 가요>-신양리해수욕장
2005. 07. 23	‘2005 토요상설예술무대(제주도문화진흥원주최)
2005. 08. 04	‘2005 한여름밤의 해변축제(제주시해변공연장)
2005. 08. 13	미니미니랜드(소인국테마) 초청공연
2005. 09. 10	제주팝스앙상블 러브콘서트(한림읍 서부사회복지회관)
2005. 09. 11	제14회 전국무용제 축하음악회(문예회관 야외특설무대)
2005. 09. 29	서귀포칠십리축제 출연-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2005. 10. 04	탐라문화제 축하공연<신산공원야외무대>
2005. 11. 25	2005대입수험생을위한 팝스콘서트-제주학생문화원대극장
2005. 11. 26	제4회 정기연주회

#### ④ 제주청소년관악단

제주청소년관악단은 제주도내에서 관악기를 연주하는 중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구성되어진 음악단체로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연주를 통한 수준 높은 청소년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악대의 체계적인 음악교육과 전문연주자의 지도를 통해 단원들간의 합주능력을 극대화시켜 수준 높은 음악을 만들어 세계적인 청소년 관악단으로 육성시키고 이 단체를 문화관광상품화 하여 음악을 통해 제주를 홍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클래식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3년에 구성되어 클래식과 대중음악 및 팝 뮤직 등의 대중적인 레퍼토리를 개발하고 있다. 2004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제주관악제 참가, 문화 소외 지역의 방문연주회등을 하며 제주청소년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표 14> 제주청소년관악단 주요연혁**

일시	세부내용
2004. 05. 18	창단연주회
2004. 07. 30	함덕 ‘아가의 집’ (혜정원) 방문연주회
2004. 08. 11	제주관악제 참가
2004. 10. 22	제2회 정기연주회
2005. 01. 21	제3회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2005. 01. 28	교육문화주간(제8회 학생종합예술제 & 제15회 교원예술제)연주
2005. 05. 29	제주조각공원 방문연주회
2005. 06. 17	제4회 정기연주회 ‘청소년관악단과 함께 불러보는 우리들의 노래’
2005. 08. 18	제10회 제주국제관악제 참가
2005. 10. 15	제5회 정기연주회
2006. 01. 25	제6회 정기연주회 “청소년을 위한 협주곡의 밤”
2006. 05. 13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함덕 ‘아가의 집’)
2006. 05. 13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일출랜드 ‘미천굴’)
2006. 05. 27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우도 연평 초·중학교)
2006. 06. 16	제7회 정기연주회 호국보훈의 달 기념 “나라사랑 음악회”

다음 <표 15>는 2005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발간하는 ‘제주문예 연감’에 실린 제주도내의 음악단체 현황 중 관악 및 관현악 연주단체 현황을 창단연도 순으로 정리 한 것이다.

**<표 15> 제주도내 연주단체(관현악분야) 현황**

구분	단체명	창단연도
관악	시민밴드한라원드앙상블	1993
	제주브라스앙상블	1995
	서귀포시립관악단	1998
	제주원드오케스트라(전 제주페스티벌밴드)	1999
	제주팝스앙상블	2000
	제주플루트앙상블	2001
	제주플루트리틀앙상블	2002
	제주청소년 관악단	2003
	브라스앙상블 ‘오름’	2003
	제주클라리넷 앙상블	2003
	제주타악기앙상블	2004
	프라임타악기앙상블	2005
	화음플루트 오케스트라	2005
관현악	제주챔버오케스트라	1984
	제주시립교향악단	1985
	제주청소년오케스트라	1989
	준트리오	1994
	제주YMCA유스오케스트라	1997
	빛소리앙상블	2000
	한리챔버오케스트라	2001
	제주신포니에타	2002

### 3. 관련 주요 행사

#### 1) 제주관악제

제주관악제는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가 1991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통있는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며 진행해 오고 있는 음악축제이다.

매해 여름마다 양일간에 걸쳐 개최하고 있는 순수 제주 관악인의 축제로 제주국제관악제와 함께 제주의 대표적인 관악 축제로 꼽을 수 있다. 또한 이 축제는 지금의 제주국제관악제가 있게 한 모태라 할 수 있으며, 제주가 ‘관악의 메카’라 불리게 된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악의 메카, 제주’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만이 살고 있다는 제주도에 약 300개의 전국 관악밴드 가운데 20개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관악 인구 저변확대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치루어지는 이 관악제에는 제주도내의 초·중·고교 관악단과 대학 관악합주단, 그리고 그 외의 도내 여러 관악 단체가 대거 참가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다. 제주관악제는 앞으로도 제주 지역 관악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꾀하며 지속적인 관악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 2) 제주국제관악제 25)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토박이 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해 격년제로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 제2회 대회까지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1998년에는 일본, 대만, 독일, 한국에서 참가한 전문앙상블, 관악독주 등 소규모의 앙상블축제를 마련했다. 대중적 호응이 높고 축제성이 강한 홀수 해의 밴드축제와 병행하여 전문성에 초점을 맞춘 짝수 해의 행사였다.

---

25)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http://www.chejusbf.or.kr/history/index.html>

1999년 제4회 때부터는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게 되었는데 이는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제주시의 의욕적인 조치와 관악을 전공하여 활동하던 제주의 관악인들과의 협력에 의해서였다.

2000년부터 짝수 해에는 세계 젊은이들을 위한 관악콩쿠르가 앙상블축제와 같이 열렸다. 이 경연은 세계의 젊은 관악인들의 의욕을 높이고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 최초의 국제관악콩쿠르이다. 또한 2004년에 제주국제관악제 앙상블축제와 제13회 아시아태평양관악제(APBDA)가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제주국제관악제의 인지도 확산과 APBDA 사상 최대규모로 개최되어 서로의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 제주국제관악제의 운영방침

- 홀수 해는 밴드축제, 짝수 해는 전문 앙상블축제 및 국제관악콩쿠르를 마련하여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추구하는 효과적인 축제로 각기 격년제로 병행 실시한다.
- 국내외 우수 관악단을 초청하여 참가자들의 국제적 안목을 높이며 세계관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한다.
- 분야별 국내외 유명 관악인들을 초청하여 연주와 공개강좌를 마련하여 축제의 전문성을 높인다.
- 지역과 국가간의 관악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 민박(Home Stay)사업과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계기를 마련한다.
- 제주도 전지역을 집약한 주요장소에서 연주회를 마련, 참가 관악단들은 그룹 별로 순환 출연한다.
- 국내외 전문가에게 제주, 혹은 한국적 정서를 나타낼 수 있는 창작곡을 위촉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한다.
- 짝수 해 국제관악콩쿠르의 1위 입상자는 홀수 해 밴드축제에 초청하여 관악단과 협연기회를 제공한다.
- 제주도내 연주자 및 합창단의 참여폭을 넓힌다.

제주국제관악제는 해마다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린다. 그리고 짝수 해와 홀수 해가 각기 특징적으로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추구



하는 이상적이며 완성된 축제로의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는 대표적 예술축제의 하나이다. 위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운영방침이다. 26)

### 3) 그 외 국내외 행사

#### 가. 아시아·태평양관악제

1974년 아·태지역의 균형적 관악발전을 위해 당시 일본취주악지도자회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관악지도자협회」를 창설하였다. 1978년 제1회 총회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고, 이후 격년제로 개최기로 결의하여 아·태지역 관악지도자들의 교류와 관악지도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1992년 대만 타이베이 대회서부터 회원국들의 유명관악단들이 참여하는 관악축제로 정착되었다. 한국은 1982년(서울)과 1990년(광주)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이 대회는 아·태지역 16개 국가의 관악지도자들과 관악단들이 참여하며 매회 마다 국가와 장소를 달리하여 개최하고 있다.

제주는 2004년 제13회 개최지로 대만 치아이시(嘉義市) 총회에서 2000년에 결정되었다. 회원국으로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홍콩, 마카오, 뉴질랜드, 통가, 인도네시아등 14개 국가이다. APBDA(Asia & Pacific Band Directors' Association)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회원국간의 음악교류와 우정의 증진, 회원국간의 밴드활동과 지원과 교류의 증진, 밴드 레퍼토리, 학습법 교환 및 밴드활동과 관련한 정보 증진 및 강화 밴드 지도자 전문 육성에 관련한 정보 교환의 증진 및 촉진등이다. 2004년 8월 14일 ~ 8월 18일까지 5일간 제주에서 열린 제13회 APBDA는 제주국제관악제의 앙상블축제와 관악콩쿠르 기간 중에 함께 열

---

26) 교육인적자원부 지원, 제주관광대학 주문식교육 지원사업단 주관사업 “음악축제 전문가 육성과정 특강” 교육 교재, 2005, p. 38

렸다. 제주국제관악제는 홀수 해는 밴드축제, 짝수 해는 앙상블축제와 관악콩쿠르가 열려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추구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APBDA 참가 관악단 단원들은 세계적 수준의 금관앙상블 공연과 세계 젊은 관악인들의 열띤 경연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표 16> 아시아·태평양관악제 연혁**

횟수	연도	개최지
1회	1978년	도쿄(일본)
2회	1980년	도쿄(일본)
3회	1982년	서울(한국)
4회	1984년	마닐라(필리핀)
비공식	1986년	타이페이(대만)
5회	1988년	치앙메이(태국)
6회	1990년	광주(한국)
7회	1992년	타이페이(대만)
8회	1994년	하마마쓰(일본)
9회	1996년	홍콩
10회	1998년	시드니(호주)
11회	2000년	치아이(대만)
12회	2002년	광저우(중국)
13회	2004년	제주(한국)
14회	2006년	마카오(중국)
15회	2008년 계획	케인즈(호주),

#### 나. 2006 세계 마칭쇼 밴드 챔피언십

비영리 단체인 세계마칭쇼밴드협회는 초기 몇 나라의 밴드 지도자 모임에서 단기간 내에 세계적 규모로 성장했으며, 현재 6대륙 32개국에 걸쳐 다양한 회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세계 24개국의 마칭쇼밴드협회와 마칭쇼밴드, 그리고 그 단원들이 회원이며, 다수의 회원들이 학교나 청소년 관악 교육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들에게 홍보 및 교육 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웹 사이트 관리, 전 세계의 마칭쇼밴드와 관련된 행사를 구분 공인하여 지원한다.

더불어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대회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초기 이 협회는 국제적인 마칭쇼밴드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밴드 지도자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이었다. 그러나 세계 마칭쇼밴드 및 협회들 간의 공통된 이익, 요구, 관심사 등을 확인하면서 공식적인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마칭쇼밴드 지도자들, 마칭쇼밴드 그리고, 세계의 협회 간 상호 협조와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러한 일들이 세계의 마칭쇼밴드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데에 공감하게 된다.

초기의 조사단은 이러한 내용들을 주장할 국제기구의 필요성 때문에 조직되었고, 1991년 12월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미드웨스트 밴드클리닉(International Mid-west Band Clinic)에 참가한 마칭쇼밴드 지도자들 사이에서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십과 마칭쇼 밴드를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위한 회의를 갖기로 하였다. 국제미드웨스트밴드 클리닉에는 1만 명 이상의 세계 관악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가장 큰 행사였으므로 이 대회를 회의 장소로 결정된 것이다. 1992년 12월 미드웨스트클리닉 회의에서 협회의 설립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로 옮겨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법적 등록 절차를 위해, 세계마칭쇼밴드협회(World Association of Marching Show Bands)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1995년 7월에 비영리 협회로 미국의 델라웨어주(the State of Delaware)에서 협회의 법적 등록을 마쳤고, 이어 1997년 7월에는 현재 사무실이 있는 캐나다 앨버타(Alberta) 주에 비영리 단체로 재등록하였다.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이 협회는 자선사업 및 교육사업이 주목적이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전 세계 마칭쇼밴드의 국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비자산, 비영리 단체인 협회는 델라웨어 주의 법인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 대회 유치는 행사 3년 전에 확정되며, 세계 여러 나라의 많은 단체들이 대회 유치를 위해 경쟁하기 때문에, 유치 희망 단체는 보다 나은 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5년 전에 유치를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제1회 공식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대회는 1996년 7월 캐나다에서 열렸

고, 유치 확정을 위해서는 WAMSB기준, 규칙, 법규, 인원 등의 자격이 갖추어져야 한다. 대회는 가급적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또 개최지역의 자원봉사자나 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주최국의 다양한 관악단체들 간 상호 협력이 가능한 것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전 세계를 순회하는 개최지 선정은 세계적 수준의 마칭쇼밴드 행사를 모든 국가에서 유치하게 함으로써 전 세계인이 고루 마칭쇼밴드 행사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표 17> 2006 세계마칭쇼밴드챔피언십 제주대회 참가팀**

번 호	단 체 명	국 적
01	Calgary Stetson Show Band	캐나다
02	Spirit of America	미 국
14	Bodindecha Marching Band	태 국
16	Millenium Marching Band	이탈리아
19	Sacred Heart Convent Band	태 국
28	Hong Kong Vigor Marching Band	홍 콩
29	SSy Ho Ngai College Marching Band	홍 콩
31	Chonkanyanukoon School Marching Band	태 국
32	FAMUTA	브라질
38	Pok Oi Hospital Tang Pui King Memorial College Marching Band	홍 콩
39	Chien Kuo High School Marching Band	대 만
40	Tenrikyokogakuen High School Marching Band	일 본
41	Hong Kong Youth Marching Band (Blue Sky Regiment)	홍 콩
42	Spielmannszug Hattstedt e.V.	독 일
43	Heung To Marching Band	홍 콩
45	Onyanghandol High School Marching Band	한 국
46	Yum Kwang Marching Band	한 국
49	Seika Girls High School Marching Band	일 본
50	Hwabug Elementary School Marching Band	일 본
51	Jin Fan Band	중 국
52	Jeju Grils Commercial High School Band	한 국
53	Sarasit Pitthayalai Marching and Show Band	태 국
54	Jeju Seo Middle School Marching Band	한 국
55	Marching Band of Chungju Girls' Commercial High School	한 국

출 처 :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 4. 제주국제관악제

### 1) 배경과 역사

제주도는 한국의 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맑은 공기와 물,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평화의 섬”으로 불린다. 제주국제관악제는 야외연주가 용이한 관악의 특성과 함께 제주가 갖고 있는 평화스런 이미지와 여름철 낭만이 조화를 이룬 관악축제이다. 제주의 관악은 50여년 전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절부터 금빛 나팔소리와 둥둥 울리는 북소리로 제주사람들의 애환을 달래며 친진스런 동경과 꿈을 심어 주었다. 이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한 제주 관악은 이제 중·고교, 대학, 경찰, 일반 및 서귀포시립관악단 등 모두 17개 관악대가 활동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립관악단은 한국최초의 시립관악단으로써 그 의의가 매우 크다.

### <그림 3. 제주국제관악제 포스터>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한 제주국제관악제는 해마다 8월12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린다. 그리고 짝수 해와 홀수 해가 각기 특징적으로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함께 추구하는 이상적이며 완성된 축제로의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제주도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 예술축제의 하나이다.

다음은 2002년 여름, 조선일보가 ‘제주국제관악제’를 특집으로 다룬 기사 내용 중의 일부와 2004년 여름, 음악저널의 보도 내용의 일부이다.

돌과 바람, 여자가 많아 제주도는 삼다도로 불린다. 언제부터인가 제주의 8월은 그 중에서도 단연 ‘바람’이 으뜸이다. 관악기에 불어넣는 인간의 숨결이 상쾌한 음악으로 화하는, ‘섬, 그 바람의 울림’을 주제로 한 제주국제관악제가 8월을 수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제주시 전역에서는 제7회 제주국제관악제 - 앙상블축제와 국제관악콩쿠르의 열풍이 뜨겁게 불었다. 세계 12개국에서 온 정상급 연주자들이 뿜어내는 나팔소리는 관광객과 시민의 눈과 귀를 붙들어 댔다. 제주는 유달리 관악이 강하다. 시가 퍼레이드를 펼친 오현고 밴드는 우리나라 학교밴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시립관악단체로는 한국 최초인 서귀포시립관악단을 비롯해서 악단 수만 19개에 이른다. 이들 관악인들이 주축이 되어 해마다 8월에 음악축제를 시작한 것이 어느덧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섬, 그 바람의 울림” 이제는 여름이면 생각나는 제주의 상징어가 됐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혜의 관광지라는 제주의 이미지에서 ‘음악으로 일군 섬’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하게 뇌리에 박히고 있다. 또한 아시아 관악축제의 중심축으로 그 입지가 굳어지고 있다.

## 2) 현황

### 가. 취지

관악은 씩씩함과 힘찬 기상, 빛나는 화음으로 대중과의 친화력이 뛰어난 음악예술이다. 제주의 관악은 1950년대 어려웠던 문화환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뚝뚝 울리는 북소리, 빛나고 힘찬 나팔소리로 삶의 애환과 꿈을 실으며 도민과 함께 신명을 나누어왔다. 이제 세계는 이념의 갈등을 허물고 문화와 우정으로 어깨를 마주하며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평화의 섬’으로 불리는 이곳 제주에서 진취적이고 조화로운 관악을 통해 지역과 국가간의 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보다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주국제관악제를 마련한다.

#### 나. 방향과 목표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의 여름과 어우러진 전문 관악축제, 관악을 통한 시민 화합 축제,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관광 축제라는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제주도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연대감 고취, 둘째, 음악의 정신 ‘하모니’로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며, 셋째,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고루 추구하는 세계적 관악축제를 지향하고, 마지막으로 국제 문화 교류와 우의 증진이다. 이 축제는 ‘95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홀수 해는 대규모 관악축제를 통한 관악의 대중성 추구하고 짝수 해는 전문 앙상블축제와 국제관악콩쿠르를 통한 관악의 전문성을 추구한다.

#### 다. 축제개요

Jeju Summer Band Festival이라는 명칭의 제주국제관악제는 ‘섬, 그 바람의 울림!’(Island, The Resonance of Wind!)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매년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9일간 제주해변공연장과 제주도문화회관, 한라아트홀을 비롯하여 천지연폭포야외공연장 등지에서 치루어지고 있다. 제주시와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한국예총제주도지회, 제주도관광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 및 제주문화원, 제주도내 주요 언론사 등이 후원을 하고 있다.

### 3) 영향

제주가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을 표방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문화의 세기에 걸 맞는 문화관광만이 제주의 진정한 미래라고 볼 때, 여름철 천혜의 자연경관과 잘 어울리는 제주국제관악제야말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본다. 그렇다면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지역의 사회, 문화, 예술적 측면등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축제는 문화와 상호 밀접한 보완 관계이다. 문화란 상당히 복잡한 요소와 구조에 의하여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고, 또 다른 문화권과 교류하면서 변화하여 재통합을 이루어 변화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축제 또한 지역 문화를 재확인 하는 하나의 문화권 활동으로써, 문화를 돈독하게 하며 다른 문화권을 끌어들이며 변화를 유도하여 문화의 재통합을 이루게 하는 계기가 된다. 축제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며, 문화는 축제를 포용하여 재통합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는 인간결합으로서의 공동체이다. 사람은 누구나 매우 복잡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밖에 없다. 가족, 학교, 국가, 행정구역등의 조직을 떠나서도 개인의 실사회(實社會)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작용한다.

인간은 항상 타인과의 상호활동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며, 사회생활은 대인적(對人的)인 교섭이나 행동으로 영위된다. 사회는 구조적으로, 구성원 개인의 일정한 사회관계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관계하는 개인의 행동할 수 있는 범위나 행동양식을 정해주게 되어 개인은 사회적 지각 특히 대인인지(對人認知), 사회적 동기부여, 태도의 형성과 변용, 개인의 사회화, 인격의 사회적 형성, 언어 행동과 기타 표현행동 등이 어느 정도의 상식선에서 항상 사회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소집단 내에서의 대인 상호작용에서도, 집단구성원간의 상호작용 특히 커뮤니케이션, 집단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압력이나 영향, 집단의 발달, 집단의 구조, 특히 지위와 역할의 분화, 리더십 집단적 문제 해결과정 등에서도 구성원 개인의 행동



범위나 양식에 항상 알게 모르게 규제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대집단, 전체사회의 구조나 기능에 의해서도 매스커뮤니케이션, 선전과 광고, 유행과 유언(流言), 여론과 투표행동, 사회적 편견과 인종관계, 국제관계와 평화문제, 문화심리나 국민성의 문제, 비행, 범죄, 미신, 광신, 군중심리 등의 사회 병리적 현상 등에서도 항상 개인은 대중사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관계나 사회구조, 사회과학, 사회심리 속에서 축제는 사회와 함께 발전하여 축제자체가 사회화하고, 그 사회는 다시 축제를 불러오게 하여 축제와 사회는 시대와 지역에 맞게 항상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셋째, 축제의 내용은 모두 예술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축제 그 자체가 예술행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술이란 미적창조를 위한 인간의 제반행위 및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제가 가져다주는 예술에 대한 영향은 대단히 지대하여 예술은 축제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고, 축제는 예술을 이용하여 더욱 알차게 성장한다.

네 번째로, 축제로 인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이 축제에 참가한 인원 및 연주자, 동반가족들의 소비지출 증대, 그리고 이러한 소비지출 증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산출, 고용, 소득증대 효과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이래로 참가자의 소비지출증대 27억원과 시설투자 5억여원의 증대로 인해 나타나는 총산출 효과는 44.6억원, 고용효과는 224명, 소득효과는 30.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임원, 연주자 및 동반자 가족의 직접적인 소비지출증대로 인해 총산출은 37.7억원, 고용은 188명, 소득은 26억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설투자로 인해 총산출은 6.8억원, 고용은 35명, 소득은 4.7억원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제주국제관악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구분	총산출효과 (백만원)	총고용효과 (명)	총소득효과 (백만원)
임원 및 연주자	3,030.1	150.9	2,096.7
동반가족	743.8	37.6	512.4
소계	3,773.9	188.5	2,609.1
시설투자	688.3	35.7	478.9
총 계	4,462.2	224.2	3,088.0

마지막으로 이 축제가 제주 관악인들의 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에 물 맑고 공기 좋은 절해고도(絶海孤島) 제주 섬은 한반도와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토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적 다른 문화권을 이루어 왔다. 이런 지정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에 관악다운 관악이 처음 들어온 것은 아마도 한국전쟁이라 불리는 6.25동란 때, 제주도 모슬포에 서둘러 세운 ‘육군 제1훈련소’의 군악대와, UN군 보급관으로 제주에 파견된 길버트 소령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생각된다. 그 후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5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제주 관악은 중학교 관악대(서귀중학교, 제주서중학교, 제주신성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관악대(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관악대), 남녀혼성고등학교 관악대(제주대학교 부설고등학교, 남녕고등학교, 제주상업고등학교,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한림공업고등학교), 남자고등학교 관악대(오현고등학교, 제주제일고등학교, 대정고등학교, 대기고등학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대학교관악합주단(제주대학교 관악합주단, 제주관광대학 관악합주단), 경찰악대(제주경찰악대), 군악대(해군 제주방어사령부 군악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관악합주단(한라윈드앙상블), 관악전문인으로 구성된 전문 관악합주단(제주윈드오케스트라), 시립관악단(서귀포시립관악단), 관악앙상블(제주브라스앙상블, 제주팝스앙상블, 제주청소년관악단, 제주폴루트앙상블, 제주클라리넷앙상블)등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제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 관악대가 골고

루 활동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도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에서 지방음악 저변확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 합주경연대회에 출전하는 팀들의 합주 능력이 매해 발전하고 있어 제주 관악의 미래를 밝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주의 자랑이요 제주 관악인들의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 특히 1998년도의 창단 된 서귀포시립관악단은 관악합주단으로는 한국 최초의 시립단체로 제주의 관악인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외부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제주 관악인들의 열정과 노력에 의하여 1995년부터 시작 된 제주국제관악제는 제주도민의 문화적 자긍심과 연대감을 고취하고, 음악의 정신인 ‘조화’를 통하여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며, 국제문화교류와 우의를 증진시키면서,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관악전문축제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첫발을 내디뎠다.

제주국제관악제는 홀수 해에는 전 세계의 수많은 관악합주단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축제를 통하여 관악의 대중성을 꾀하고, 짝수 해에는 전문 앙상블 축제와 국제관악콩쿠르를 통하여 관악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이른바 관악의 대중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축제로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악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짝수 해에 앙상블 축제와 함께 열리는 국제관악콩쿠르는 한국 최초의 국제관악콩쿠르라는 점에서도 제주관악인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이런 모든 일들이 외부의 도움이 없이 제주지방 관악인들의 순수한 노력만으로 이루어 세계 유명 관악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주 관악인들이 자랑스러워 보인다. 27)

---

27)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 예술, 사회적 환경에 대한 연구, 2004. p. 121

#### 4) 발전방향

제주도는 예로부터 돌과 바람, 여자가 많아 삼다도(三多島)로 불리어 왔다. 그 중에서도 바람은 제주의 자연 환경을 척박하게 만들어 도민들의 삶을 힘들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제주도민들을 힘들게 했던 바람을 이용하여 예술로 승화시키고 삶이 질 향상에 기여하는 분야가 있으니 그것이 관악(管樂)이다.

관악기(管樂器)는 관(管) 속에 공기를 주입시켜 그때 발생하는 진동으로 소리를 얻어내는 악기이다. 이런 관악기의 행연이 언제부터인가 제주의 8월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섬! 그 바람의 울림’이라는 제주의 이미지를 승화시킨 주제로 국제관악제를 시작한지 어언 12년이 흘렀다. 그 12년 동안 제주 토박이 관악인들은 숏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바람의 이미지를 가지고 가장 성공적인 문화예술축제를 만들어 냈다. 이제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의 특성과 함께 제주가 갖고 있는 평화 이미지와 여름철 낭만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시아 최대의 관악축제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제 음악의 요소인 ‘하모니’와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접목시켜 더 높은 이상(理想)의 추구를 통한 ‘세계 속의 제주 관악’을 실천할 때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를 국가 전략상품으로 개발하려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계획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더불어 제주의 관악단체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으로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도 연구해 볼 만 하다. 더 나아가 세계관악제를 유치하게 된다면 관악 활동을 통한 제주의 명성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 즈음에서 제주국제관악제의 향후 과제와 그에 대한 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관악제가 개최되는 시기에 관람객 유치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제주 해변공연장이나 천지연폭포 야외공연장 등 야외연주에는 수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지만 문예회관이나 한라아트홀 등 실내 공연

의 경우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야외 공연인 경우 실내 연주와는 달리 매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하여 실내 연주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다양한 시도 외에 추가로 관객들에게 보상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간단한 기념품의 제공이나 연주 홍보물의 무료 제공, 지휘자나 연주자를 활용한 펜 사인회 개최 등이 그것이다.

둘째, 관객들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진정한 음악 매니아는 접하는 음악이 어떠한 종류의 음악이건 간에 음악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데 관악제에 참여하는 관객들인 경우 관악 연주에 관심을 가진 매니아들보다는 다른 이유로 공연장을 찾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음악의 매력을 찾고자 하는 매니아들을 육성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관악 연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예술 행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든 예술관련 종사자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가능한 방법을 고려해 보면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악 교실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단계별 음악 코스 개설, 실내외 연주 프로그램의 차별화, 아마추어 밴드 운영의 활성화, 연주 수준 높은 관악연주 감상 기회의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연주자들을 비롯한 작곡가, 음악학자, 그 외 음악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관악은 연주자들에 의해서만 발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시장이 성장하기 위한 전체적 환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악을 진흥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세미나등을 열고, 콘서트나 클리닉 이외에도 유명 음악학자, 작곡가, 지휘

자들을 초청하여 자신들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의 학문적 모임을 갖게 하거나 작곡가 자신들의 작품을 연주그룹에 의해 초연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넷째, 성공적인 제주국제관악제를 개최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이다. 2003년 제주국제관악제에서는 문화관광부 평가 의뢰기관인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주국제관악제의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는 제주 관악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필수이다.

현재의 제주국제관악제는 이상이나 목표에 비하여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이 분명히 부족하다. 더구나 제주는 육지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예산은 더욱 적다할 수 있다. 이제 제주국제관악제는 세계를 향해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때이다. 제주도나 제주시 등 기관의 지원과 제주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활용하는 기업체들의 관심이 더욱 요청된다. 또한 제주국제관악제 개최를 계기로 비록 큰 재원은 안 될지라도 관악제와 연계하여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캠프를 유치하거나 제주국제관악제 로고를 상품화하는 방안, 관악제를 활용한 여행 상품의 개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번째는 세계 정상의 공연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좋은 콘서트홀의 부족이다. 제주국제관악제의 경우 주공연장으로 제주 문예회관을 쓰고 있고, 이 공연장과 2~30분의 거리에 소재하는 몇 개의 장소를 확보하여 부속공연장으로 쓰고 있다. 거의 매년 축제장소로 굳어진 것은 해변공연장, 제주 문예회관, 서귀포 천지연 폭포 야외 무대와 몇 년 전부터 중요한 실내공연장으로 쓰여 진 한라아트홀까지 실내 연주장 2곳 실외 연주장 2곳이다. 축제기간은 한정 되어있는 반면 축제에 참가하는 단체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연장 곳곳에서 공연들이 동시에 열리고 있고 그로 인하

여 관객이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이 해마다 전국 행사 및 국제 행사를 치루는 제주도에 좋은 공연장의 건립은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국제관악제에는 세계 정상급의 연주단체들이 매년 대거 초청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밴드를 제주로 부르는 것은 높은 수준의 관악제를 증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악이 음악의 진수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밴드들이 제주국제관악제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매력적인 일이 될 것이다.

### III. 결 론

#### 1. 종합 분석

본 논문은 한국의 관악 발전사와 제주의 관악 발전사를 비교 연구 하였고, 오늘날 제주 관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주국제관악제를 조사, 연구 하였다.

우리나라에 군악대가 처음으로 창설된 것은 광무 4년(1900)이다. 이 때에 독일 정부와 교섭하여 독일 해군 군악대장인 에케르트를 초빙하여 이듬해 6월 완전한 군악대로의 발족을 보게 된다. 그러나 1910년 일제의 강제 합병으로 한국 최초의 군악대는 해산되고 다시 '제실음악대'(이왕직 양악대)로 개편되었으나 1916년에 해산된다.

이와 같은 역경 속에 1919년 '경성악대'를 조직하여 민간 자영 단체로 그 명맥을 유지하려 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또 다시 해산하게 되어 그 기능이 마비되고 만다. 양악대를 지켜 온 대원들은 학교의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한편, 학교악대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였다. 이것이 우

리나라 관악교육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1917년 평양 숭실학교악대를 시작으로 1930년 조선일보사 주최 전국관악 경연대회 등, 해방 전까지 학교악대의 창설과 더불어 관악 교육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으면서 관악의 열기는 점점 더 고조되기 시작했고 1946년에는 육군, 해군 관악대가 창설되고 경찰악대 및 한국관악연맹이 조직, 그리고 서울 시립취주악대의 창단이 이루어졌다. 1947년에는 육군군악학교 창설, 1949년에는 해군군악학교 창설, 1951년에는 해병대 군악대와 공군군악대가 창설되었다. 이 밖에 민간악대들이 조직되어 관악운동의 정열을 더해 갔으나 한국전쟁으로 모두 해산되고 말았다.

과거의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에서 중앙의 문화권에서 가장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예로부터 정객들의 유배지로 인식되어 왔을 뿐 빈곤한 생활 속에서 문화적 후진성을 면치 못하였다. 8·15 해방 이후 새로운 학재에 의한 중학교가 제주도에 개교되면서도 중학교에 본격적인 관악대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비단 제주뿐만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다 한국전쟁 이후 한 외국인에 의한 전문적인 지도와 악기, 악보가 공급되어 비로소 학교관악대의 활동이 시작되게 된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관악활동은 전반적으로 볼 때 별다른 양상은 띠고 있지 않으나 활동을 보인 학교악대가 430여개나 되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학교악대는 주로 행사위주로 운영되었고, 1970년대부터는 학교악대는 그 수가 줄었으나 각종 경연대회와 관악제를 통하여 연주의 기량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 시기에 제주에서는 한국관악대 지도자회(현재의 한국관악협회) 제주도지부가 결성되고, 학교 관악대가 속속들이 탄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0년대의 경제 부흥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관악활동이 활발하였는데 군악대의 발전에 부응하여 민간악대로서 서울교향취주악단과 린나이 콘서트밴드 그리고 서울 한울림교향취주악단 등이 활동을 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서울윈드앙상블을 비롯하여 약 30여개의 민간 관악



단체와 학교악대의 활동이 전성기를 이루었고 이 시기에는 이러한 양상은 제주도 관악계에도 나타난다. 1982년 처음으로 탄생한 민간악대인 탐라관악합주단(현재의 시립교향악단)과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으나 1983년 영진육아원 원아들을 중심으로 창단한 영진원드앙상블이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제주대학교에 음악교육과가 신설되어 음악 전공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였고,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창단된 여러 고등학교 관악단들이 도외경연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내며 전국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보인 시기이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도 음악활동은 급속한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제주시립교향악단과 제주시립합창단, 서귀포시립관악단과 서귀포시립합창단 등 시립음악단체들의 활동, 제주관광대학과 제주한라대학의 음악과 신설, 대학의 음악관련 학과에서 배출된 음악인들의 활동, 새로운 연주단체들의 잇따른 창단과 활동, 각종 국제음악제의 참가 및 개최 등 제주의 관악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것이다. 그리고 1995년 개최하기 시작 된 제주국제관악제는 단연 1990년대 제주 음악계에 있어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축제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제주지역의 음악계뿐만이 아닌 사회, 문화, 예술적 측면 등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며 우리 지역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어느덧 제주에 국제관악제를 시작한지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12년 동안 제주 토박이 관악인들은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장 성공적인 문화예술축제를 만들어 냈다. 이제 제주국제관악제는 관악의 특성과 함께 제주가 갖고 있는 평화 이미지와 여름철 낭만이 조화를 이루며 아시아 최대의 관악축제로 자리를 굳혀 가고 있다. 앞으로 제주의 관악은 더 높은 이상(理想)의 추구를 통한 ‘세계 속의 제주 관악’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관악 활동을 통한 제주의 명성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 2. 결론

제주는 열악한 지리적, 사회적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의 작은 지방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동북아시아 중심도시, 세계평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특별자치도라는 특수지역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특별기구를 두어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정부 또한 지역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 또한 한해에 720여 회의 무대공연이 이루어지고 450여 회의 음악회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 하는 말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제주의 문화예술의 일면지인 도 문예회관의 대관율을 볼 때 공연장 대관의 73%가 음악회이고 그 중 클래식분야의 대관율이 63%로서 전국의 평균 대관율인 31%의 곱절 이상이다.<sup>28)</sup> 이러한 사실은 문화예술분야, 그 중에서도 음악분야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음악축제인 “제주국제관악제”에서 또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다. 뜻있는 젊은 관악인들의 열정이 현재의 국제관악제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첫째 개최에 5000여만 원의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여 현재 그 10배에 달하는 예산의 확보는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제주의 관악사는 단순한 음악분야의 역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참담하고 어려웠던 시절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던 분야가 바로 관악이다. 북소리와 나팔소리로 제주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달래며 한줄기 빛이 되었던 것이 바로 관악이다.

---

28) 김태관, 지역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제주도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p. 61

이제 우리는 제주지역 역사의 중심이 되었던 관악을 기반으로 제주의 문화관광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평화의 섬’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쏟아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악이라는 작지만 튼튼한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제주 관악의 지속적이며 무한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뜻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남궁요열, 개화기의 한국음악, 세광음악출판사, 서울, 1987.
- 남궁요열, 한국음악총람(상), 한국음악협회, 서울, 1991.
- 방일영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총서, 우리양악100년, 서울, 2001.
- 부만근, 광복제주 30년, 서울(설문조사), 1982
- 이유선, 한국 양악 80년사, 중앙대학교 출판부, 서울, 1968.
- 이유선, 한국 양악100년사, 음악춘추사, 서울, 1985.
- 제주문화예술재단 계간지 “삶과 문화”, 2006.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정책연구 제2집, 2005.
- 제주예총, 제주문화예술백서, 제주 음악의 어제와 오늘, 1988.

### 2. 학위논문

- 권영우, 대구지방 관현악의 역사,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상미, 제주도 서양음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수봉, 학교 관악대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의 효율적 활용(공유) 방안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태관, 지역문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제주도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병호, 한국 근대군악대의 발달과정에 대한 일고,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83
- 李尙哲, 文化觀光 이벤트로서의 濟州國際管樂祭 活性化 方案, 慶南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6.
- 李善文, 濟州道管樂의 變遷過程에 관한 調査 研究,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4.  
 이승화, 한국관악의 발전과 변천사에 관한 연구, 江原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8.  
 이영만, 濟州 音樂文化의 발전에 관한 考察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99

### 3. 보고서 및 자료집

제주시, 2004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제주국제관악제가 제주에 미치는  
 문화·예술·사회적 환경에 관한 연구, 2004.  
 제주관광대학, 제주관광대학 주문식교육 지원사업단 주관사업  
 “음악축제 전문가 육성과정 특강” 교육 교재, 2005.  
 예술문화, 2001 전주대학교 예술문화연구소, 예술문화 제4호 논집,  
 한국관악의 역사, 근대 관악사를 중심으로, 2001.  
 제주도지, 제주도지편집위원회, 제주도지(상), 1982.  
 기획취재, 제주도 예술의 현황과 전망, 제대학보 제23집, 1983  
 조선일보, 제주국제관악제, 2002. 8. 22.  
 음악저널, 2004년 8월호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예 연감, 2005

### 4. 인터넷 사이트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제주시립교향악단 <http://www.artjeju.or.kr/sirip2006/>  
 제주문화예술재단 <http://www.jcaf.or.kr/>  
 제주국제관악제 홈페이지 <http://www.chejusbf.or.kr/>  
 한라윈드양상블 홈페이지 <http://www.hallawind.net/>

## ABSTRACT

A Study on the History of Development in Korean Wind  
Music in Jeju Island and Jeju Summer Band Festival

by **Kim, ji hye**

Major in Wind Music

The Graduate School of Kyungwon University

Advisor prof. **Kim, Hyun Sook**

Jeju has been geographically an important spot of China, Japan and other North-South Asia and the heads of the world have had summit meetings there and it has been widely known as the island of peace in the world. However, the importance of history has been recently more emphasized than ever before due to the Japanese distortion of history textbook, Japanese absurd opinions on Dokdo and the historical distortion of China on Goguryeo and Chinese dongbukgongjeong. The reason for having such problems would primarily lie in failing to notice the importance of our history and we would not establish the concept of history properly and we were not verified and authoriz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Western music in Korea and attempted to establish the history of Korean brass music in Jeju based on the said historical background. Obviously, as a study with regards to the history of music, it was not simply limited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or past history. It also dealt with music festivals

and brass-related festivals held recently in Jeju (Jeju Band Festival, Jeju Summer Band Festival, Ensemble Festival and Asia & Pacific Band Directors' Association).

Before looking closely into the background of Jeju brass music,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y of Korean brass as below. In 1876, Joseon Dynasty formed a good relationship with Japan and opened its gate to Japan and entered into a Korea-USA pact on May 22, 1882. Then, the King Gojong who was intimidated by three neighboring powerful countries such as Qing Dynasty, Russia and Japan recognized that it would be urgent to establish a Korean military troop. Meanwhile, the King Gojong dispatched envoys with the central figure like Min Younghwan in the coronation of the Russian Emperor Nicolai II in May 1896 and our envoys were impressed by the performance of the Western music and military band in the coronation ceremony. After their returning to Joseon Dynasty, Min Younghwan suggested to have a military band so as to operate the military command efficiently while pursuing a military reform bill. As a result, Joseon Dynasty decided to purchase Russian military musical instruments in Mar. 1897 and started its first military band named 'Gokhodae (曲號隊)'<sup>29)</sup> This could be the beginning of the Korean brass band. It has been generally believed that the beginning of brass in Jeju was in the middle of the 1930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Due to the then Japanese educational policy, more Botong schools (modern day "primary schools") were founded, starting from the foundation of 4 schools in 1923 and increasing into 20

---

29) Chuiju band, established at the end of Joseon Dynasty. It was formed and used in the military marches and rites when a new-type military training was adopted since 1881 (Gojong 19). The musical instruments used were bugles and drums.

or so in the middle of the 1930s. Meanwhile, brass band activities started at schools by the necessity of militaristic education and military training. Then,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defeat of Japanese Imperialism, the brass band activities were suspended for a while.

However, a school band with 15 band members at Jeju Middle School was founded by Kim Gukbae in 1946.<sup>30)</sup> Korean War in 1950 had a great impact on Jeju Island and many musicians took refuges into Jeju and Jeju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m. In addition, the military band at the training camp of military army began its activities and the brass band of Ohyeon High School was founded in 1951 and the school bands of Jeju Girls' High School, Seogwi Middle School, Pyoseon Middle School and Sehwa Middle School were followed. In such a historical background, one of the representative music festivals in Jeju - Jeju Summer Band Festival- was developed and it has been one of the fascinating cultural tourist festivals in Jeju through brass that has been known to the world. The socio-economic synergy effects owing to 2004 Jeju Summer Band Festival could be divided into the produced effects, employment and income. The total produced effects were 4.46 billion won along with the increase of 2.7 billion won in consumption expenses of participants and of 0.5 billion won in facility investment and 224 persons were employed and there was 3.08 billion won of income effect.<sup>31)</sup> What could be recognized through Jeju Summer Band Festival was that valuable assets in the region could eventually bring social and economic synergy effects and such results were because of the

---

30) Jwa Unguk, Jeju Culture and Arts Year Book, Jeju Music Yesterday and Today, 1988, p. 108-122.

31) Research report from Jeju Culture & Art Foundation, [A Study on the Effects of Jeju Summer Band Festival on the Cultural, Artistic and Social Environment in Jeju], p76. 2004.



activities of brass bands in our difficult times and our senior musicians who have preserved and developed such tradition and history to the present and native brass players in Jeju who have succeeded their spiri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istory of brass and brass band in Jeju from their introduction to the present with the aid of various data and examined the history of Jeju Summer Band Festival, too.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attempted to compare the history of Jeju brass in the past and currently ongoing musical events and the future vision beyond the summary of the past history accumulated by many senior musician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come a foundation of the development of Jeju brass in the future.